

광 고

원양산업

제 1168 호

(2024년 4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 소식

-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 좌담회 개최 / 4
- 해수부 수산정책관, 협회 방문 / 6
- 원양공치봉수망 업계 대면교육 및 간담회 개최 / 7
- 협회, 원양어선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예정 / 7
- 참치 - 바다 어류의 황제 / 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4년 3월 보고 내용 / 9



이달의 요리

- 오징어 링 튀김 / 15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4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809달러 / 16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달러 / 17
- 日 2월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07엔 / 18

- 日 냉동 참치류 2월 수입 통계 발표 / 19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00달러 / 20
- 인도양 3월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 유로 / 20
- 日, 수입 참다랑어 가격 급락 / 21
- IOTC, 향후 3년간 가다랑어 어획량 한도 증대 / 22
- 스페인 황다랑어 3월 말 가격, 안정세 유지 / 23
- 2024년 참다랑어 쿼터 논의한 ICCAT 회의 / 23
- EU, 2023년 통조림 원어 수입 급락 / 24
- 美, 태평양 제도와 새로운 참치 어업 조약 체결 / 25
- 中 참치기업 Kaichuang, 2023년도 순이익 40% 급증 / 25
- 中 CNFC, 23년 참치 판매 부진으로 손실 기록 / 26
- 스페인 참치 통조림 수출, 전년 수준 유지 / 26
- NGO, 中 연승선사 IUU-강제노동 관련 추가 폭로 / 27
- EU 참치 어선 정보 관련 가이드 출시 / 29
- 아메리칸사모아, 中 참치 선단으로부터 EEZ 보호 추진 / 30
- 캐나다 연구진, 참치 먹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 31
- 세계 해양 수온, 평균 대비 약 1도 높아 / 31
- EU-필리핀, FTA 협상 재개 / 32
- 세이셸, UN 공해 조약 비준 / 32
- EU 올리브유 가격 3% 하락 / 33
- FFA, 항만국 참치 선단 모니터링 강화 / 34
- 英, 2024년 대서양 참다랑어 조업 계획 / 34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오징어 부문,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 / 35
-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어획 양호 / 35
- 中 살오징어류 가격, 전월 대비 10~20% 상승 / 36
- 일렉스 오징어 자원량, 해수면 온도와 관계있어 / 36
- 아르헨티나, 중국 어선의 EEZ 진입 허용 / 37
- 오징어 전쟁...대서양 중국선단 IUU 대응 강화 / 38
- 日, “동해 살오징어 어장, 서해로 이동 추정” / 39
- 日 2023년 냉동 오징어류 수입량, 8% 감소 / 40

■ 명태어업 동향

- 러 과학자, 25년 명태 쿼터 12% 증가 권고 / 41
- 러 최대 어기 종료...명태 100만 톤 이상 어획 / 42
- 러시아, 3/18 기준 오호츠크해 명태 66만 톤 어획 / 43
- 러, 2030년까지 어획 생산량 600만 톤 목표 / 44
- 러시아, 3/21 시점 총 126만 톤 초과 / 44
- 오호츠크해 명태 및 청어 어업 모니터링 완료 / 45
- 러시아 명태 소비량 증가 / 45
- 러, 2030년까지 고차 가공 제품 50% 초과 예정 / 46
- 日 2023년 명태 수출량, 전년 대비 48% 감소 / 47
- 부채에 허덕이는 러시아 명태 생산업체 / 47
- 中 최대 명태 회사, 러시아 생선 포기 계획 없어 / 48
- 유빙, 명태와 청어 생산에 방해 / 48

■ 공치어업 동향

- 러 수역, 공치 어업 증가 예상 / 49
- 日, 공치 어업에 AI 활용 / 49
- 퓨 “북태평양 어업 관리, 생물 다양성에 도움” / 50
- 日 2023년 공치·정어리 수출량 감소 / 51

- 日 2023년 공치·정어리 수출량 감소 / 51

■ 각국 수산 동향

- FAO “2022년 세계 수산물 생산, 2억 2,321만 톤” / 52
-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법안 잠정 합의 / 54
- USDA, 2024년 수산물 가격 1.7% 하락 예측 / 54
- 美, 수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판매량 증가 / 55
- WMO, “엘니뇨 약세에도 세계 기온 상승 전망” / 55
- 中 CNFC, 수요 감소·인건비 상승으로 실적 약세 / 56
- 日 정부, 외국인 ‘육성취로’ 제도 도입 / 57
- 日, 러시아와의 어업 협상 긍정적으로 평가 / 58
- 日, 마셜제도 무상자금 협력 지원 / 58
- 러시아, 수산 보조금 WTO 협정 조인 / 59
- 러-중간 수산 부문 협력 지속 발전 협의 / 59
- 러, 수산업 개혁과 미래 과제에 대해 언급 / 60
- 러시아 생선 및 수산물 판매 감소 / 60
- 中, 러시아 생선 제품 수입 선호 / 61
- 러, 나훗카 무역항 선석 수리 / 61



쉬어가는 난

- 산골물 - 윤동주 / 62



국내 수산 정보

-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3
- 3월 명태 국내 동향 / 65
- 외국선원 처우 개선 위해 정부·단체·산업계가 뭉쳐 / 67
-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 / 68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 좌담회 개최

원양산업 업계, 학계 관계자 한 자리 모여 현황 및 대책 논의



우리 협회는 3월 21일 오후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 신촌 좌담회를 현대해양과 공동으로 주최, (주)베토 주관으로 원양산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좌담회는 현대해양 송영택 대표가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고경만 과장,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전국원양선원노조 박진동 위원장,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이성일 교수, 이윤길 국제옵서버, 동원산업 김오태 부산지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 동원수산 왕태현 대표, 정일산업 박강휘 수산부장, 협회 신현애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하

였다.

김영규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원양어업은 1970년대 대비 조업선 등 생산 수단은 축소되었으나 생산량 및 수출액과 국가의 주요한 식량 산업의 역할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는 이날 원양산업 현황 분석에 대한 토론 1주제로 포클랜드 오징어 채낚기 업종의 ITQ(개별양도가능쿼터 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원양어선과 항만에 외국인 인력 도입, 선원 인권 표준화 지침 마련, 한국 원양 수산물 브랜드화, 조

업선의 냉매제 대체 문제, 어선 현대화와 신어법 개발 및 허용, 원양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업계·과학자·정부 거버넌스 구축과 어장 유지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였다.

이어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 2주제로 선사별 현장실무체험 학습 개설, FAO 41해구 지역 수산기구 설립에 적극 참여, ODA 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 양성 및 도입, 국가필수선박에 어선 도입, 원양 역사관 건립, 선박 신조 조건 완화, 외국인 해기사 도입, 선원 양성시스템 마련, 원양어업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법 개정, 선원 소득세 감면을 통한 핵심 인력 해외 유출 방지책 확보 등을 통한 원양산업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고경만 과장은 ODA 확대와 업계의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어장 확보, 노사정 TF를 통한 해기사 확보 방안 마련, 외국인 인력에 대한 홍보, ITQ 도입 대비 안전 펀드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원양산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규 협회장은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하여 산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원양산업의 미래는 밝으며, 앞으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하여 원양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하다”라고 전하였다.



해수부 수산정책관, 협회 방문 협회 건의사항 등 청취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과 업무협의회를 추진하여, 협회 업무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고 원양산업 현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정책관 외 2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협회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업무 및 원양산업 일반 현황 보고와 함께 △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 통신장 승선(겸임) 기준 완화 △ 원양어선원 비과세 확대 △ 원양선사 세금 감면 제도 도입 △ 해외수산협력센터 사업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원양공치붕수망 업계 대면교육 및 간담회 개최

NPFC 수역 보존관리조치 및 공해상 검색절차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7일 조업감시센터(이하, FMC)가 개최한 원양공치붕수망 업계 대면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동해어업관리단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해수부 원양산업과 정윤석 사무관, FMC 임성수 센터장 등 5명, 동원해사랑, 삼영수산, 성경수산, 원양물산 (이상 가나다 순) 선장 및 통신장을 비롯한 공치붕수망 업계 대표 관계자 13인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NPFC 수역 보존관리조치 관련 설명 △ 공해 승선검색 보존조치 등 검색절차 관련 설명 △ IUU 선박목록 공유 △ 전자조업보고 단말기 사용 안내 등의 교육과 애로사항 관련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협회, 원양어선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예정

5월 2일 부산서 개최

우리 협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사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4년 5월 2일 오후 2시 부산 선원센터(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4층 중강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가 중처법 이행 설명을, 김옥성 박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동 설명회에서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방침·매뉴얼 등 수립, 이행, 평가, 수행(위험성 평가 포함)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참치 - 바다 어류의 황제

바다가 인간에게 선사한 영양의 보배

‘바다 어류의 황제’, ‘바다의 닭고기’, ‘대양의 영원한 항해자’로 불리며, 차세대 자연 건강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참치는 농어목 고등엇과인 ‘다랑어류’와 농어목 황새치과인 ‘새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지난 1957년 참치 연승선 지남호를 타고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원양 선원들이 ‘진짜 고기’라는 뜻으로 ‘참치’라 부른 것이 대중화된 것이며, 학술적인 명칭은 아니다. 이렇듯 참치는 맛, 영양, 안정성 등 세 가지 모두를 인정받아 美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인의 식단 중 하나로 지정한 식품이기도 하다.

참치는 지방 함량의 차이가 가장 큰 고기로, 회로 먹을 때 담백한 속살(아카미)부터 시작해서 등살(새도로), 옆구리살(주도로), 뱃살(오도로), 갈빗살(나카오치) 순으로 먹는 것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옛날에는 참치회 중 속살을 백미로 곁들였지만, 현재는 뱃살을 최고로 친다.

참치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몸 전체의 60% 정도지만 뱃살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지방 함량이 부위별로 차이가 나서 회를 썰는 방법도 달라야 제맛을 낸다. 지방 함량이 낮은 속살은 두껍게, 옆구리살은 보통 두께로, 뱃살은 얇게 썰어 지방과 근육의 맛이 적당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참다랑어나 황다랑어 등의 고급 참치회는 김에 싸 먹거나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참치 고유의 감칠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참치회에 레몬을 뿌리면 레몬의 산성이 참치회의 단백질을 산화시켜 회의 신선도를 급속히 저하한다. 고추냉이에 한 점씩 찍어 먹어야 고유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참치를 운반할 때 냉동된 참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치를 적당하게 썰어 고정대로 사용했던 기름치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참치회로 둔갑하였고, 기름치의 느끼한 맛을 상쇄하기 위해 김에 싸 먹어야 하는 식문화로 정착하게 되었으나, 참치를 먹는 올바른 방법도 아니었고, 기름치는 참치도 아니었다.

참치는 먹이가 부족한 원양을 회유하는 경우가 많아 먹이를 잡기 위해 고속으로 유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완전 방추형으로 고속 유영 시 물의 저항을 적게 하려고 첫 번째 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를 수납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추진력을 창출하는 강력한 꼬리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60km 정도로 유영하지만 160km 정도까지 유영하는 최고속 생선이다. 참치는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며, 이는 입을 열어 아가미를 통과하는 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참치는 헤엄치는 것을 멈추면 질식사하기에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속으로 유영을 계속하며 밤 동안에도 자지 않고 낮은 속도로 계속 헤엄친다.

참치는 전 세계에서 7종류로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청새치, 흑새치, 녹새치, 황새치) 등이 있다.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는 성장하는 데 따라 회유하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로 완전히 분리하여 분포한다. 황다랑어는 표층 부근, 눈다랑어는 중층 부근과 수직으로 분포한다. 날개다랑어는 적도를 넘어 회유하지 않으며 북반구와 남반구 집단은 각각 독립하여 성장한다. 이처럼 참치는 서로의 서식지를 확실히 구분하여 공존하고 있다.

〈수산물 건강 백과 수록 내용 편집〉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350
	3.4~10kg	1,250
	1.8~3.4kg	1,150
눈다랑어	10kg~	1,200
	3.4~10kg	1,200
	1.8~3.4kg	1,150
가다랑어	3.4kg~	1,200
	1.8~3.4kg	1,150
	1.5~1.8kg	1,000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702	'24.3.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일본과 안보협력 심화

- 주피지 일본대사는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한 피지 내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하여 안보 파트너십이 확대되었으며, 더욱 강화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은 피지의 배타적경제수역 보호를 위해 피지 해군기지에서 여러 훈련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나. 한국과의 개발 동맹국 확인

- 주피지 한국대사는 피지 총리와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올해 2,200만 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배정하여 피지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에 피지 총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회경제적 발전 기여에 감사를 표명하며 지난 30년간 한국은 2050 블루태평양 전략 등 피지의 강력한 개발 동맹국임을 확인하였다.

다. 中, 피지 인프라 재건 등 대규모 지원 약속

- 주피지 중국대사는 피지가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중국-태평양 도서국 기후행동협력센터를 통한 물품과 기술 제공이 포함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계획도 진행 중임을 중국대사는 밝혔다.



- 또한, 피지 북섬 바누아 레부(Vanua Levu)의 도로 개편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피지인의 학교, 의료 시설, 기업과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이에 중국대사는 중국 인프라 전문가가 3~4월에 걸쳐 바누아 레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82km의 도로 개축 및 확장과 61개 마을을 연결하는 22개의 교량 건설이 포함되어 피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 조업선 전자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완료

- 피지 수산부 장관은 피지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VMS 및 전자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장관은 국정보고에서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IUU어업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 또한 FFA 17개국 등 타국 수산청과 협력하여 전자허가 및 어획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피지를 통과하는 다랑어나 다랑어 제품의 어획 및 유통 균형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무부가 제공하는 전자 지급시스템을 보완하여 어업 관련 사업의 편의성 제공을 목표로 한다.

마. IMF, 피지 경제 개선 밝혀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피지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한다. IMF 피지 대표는 피지의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피지의 재정 상태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사.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203	'24.4.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선 침몰 사건 발생

- 남부 술라웨시 셀라야르 제도에서 'KM Yulee Jaya II'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높은 파도와 해일로 조업 중에 그물이 바다로 끌려 들어가면서 선박이 순식간에 전복되었으며, 사망 2명, 실종 21명 외에 12명은 구조되었다.

나. 세계 최대 규모 해조 양식 개발

-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지난 3월 12일 롬복(Lombok) 지역에서 1km 면적의 열대 해조 재배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상업화를 위하여 Sea Six Private ltd.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량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kg)
계	20cm × 12cm	5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70	'24.4.5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1~0.3톤을 어획하여 전월보다 어획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나. 어자원 및 광물 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

- 국립해양대기청(NOAA) 탐사선은 산호초 보존 및 해양 산성화 그리고 어업 협력을 위하여 태평양 탐사를 지속하고 있다.
- 일부 태평양 섬과 미지의 해산은 선박과 잠수함에 위험을 초래하며, 태평양의 산호 생물 다양성은 대서양보다 두 배나 많다. 수로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 중 기본 데이터가 없거나 해양 조사 자료가 80년이 넘은 것이 있어, 해안 조사국은 수로 및 항해 자료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하여 크루즈 선박, 유조선 등이 제2차 세계 대전 잔해 및 기타 위험 요소에 부딪히지 않고 섬 주변을 탐색할 수 있어 선박과 해양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중국 선단 세력 급성장 우려

- 현재 현지에 기반을 둔 미국 선망선은 11척이나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80척의 연승선 500척의 선망선 등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
- 이러한 어업의 지속적인 감소는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영토의 경제적 붕괴와 지역 사회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수산업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사모아 해양자원 담당관은 해양수산청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350
눈다랑어	라운드	1,150
가다랑어	라운드	1,15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46	'24.4.5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 동향

- 3월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하여 평균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아쉽게도, 지난해 대비 어획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나. 미국 수출 금지 어종 가치분 철회

- 환경 단체인 씨 셰퍼드(Sea Shepherd)가 제기한 뉴



질랜드의 멸종 위기 마우이 돌고래를 보호하는 기준이 미흡으로 뉴질랜드산 9개 어종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한 명령을 미국이 최근 해제하였다.

- 이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뉴질랜드의 관리 기준이 미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명함에 따른 것으로 호키 등 9개 어종에 대한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오징어	2L	7,250
	L	7,250
	M	5,950
	2M	5,000
	S	4,5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터니든	MGO	1,111	'24.4.10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자원 데이터 수집 예정

- 현재 모리셔스 해삼 어업은 자원 고갈 및 과잉 어업 문제로 관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하여 공동 관리구역에서 해삼을 포함한 해양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나. IMO, 탈탄소 네 번째 참가국 선정

- 모리셔스는 항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항만 운영을 최적화하는 혁신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이 있으며, 모리셔스 그린 항만 계획과 부합하고자 한다.
- IMO CARE 프로젝트 매니저는 모리셔스의 참여를 환영하며, 탄소 감축 해결책의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VIVO	MGO	940	'24.4.8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중국어선 통제

- 3월 대규모 폭풍(파고 7m, 풍속 100km 이상)으로 인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입항을 허용한 중국 등 아시아 어선 260여 척이 순조롭게 아르헨티나수역에서 이탈하도록 합동 해상사령부에서 감시를 수행하였다.
- 폭풍을 피항하는 동안 일부 선박이 어업 활동을 시도한 것이 포착되어 철저한 모니터링 명령이 조치되었으며, 중국어선 외에 피항지에서 불법어업 활동을 시도한 선박은 없었다.

나. 강제 노동과 불법 어업 중국 기업 조사

- 세계 최대어업 회사 중 하나인 Jhejiang Ocean



Family(ZOF)는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불법 어업 관련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에도 투자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조업하는 9척의 채낚기 선박의 선원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였으나, 중국 운반선을 통하여 어획물과 선원을 이동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 한국과 수산물 이력제 협력

- 한국과 아르헨티나 양국 간 무역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수산물 인증 제도를 재검증하였다. 한국의 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아르헨티나 현지 가공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아르헨티나의 통제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였다.

라. 중국 불법 어업 감시 강화

- 3월 28일 밤 10시 5분경 아르헨티나 EEZ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이 감지되어 해당 수역을 순찰하던 해군 순찰선이 해당 조업선을 공해로 철수시켰다.
- 다음날 29일 정오 중국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어창에 어획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공해 조업을 허용하였다.
- 현재 EEZ 주변에서 조업하고 있는 조업선은 수백척에 달하며 대부분 중국 국적선이다. 이에 감시 당국은 아르헨티나수역 조업 시도에 강경 대응 예정이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각 발표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마. 일렉스 오징어 기록적인 어획

- 1월 초부터 2월까지 일일 평균 30톤을 어획하던 채낚기 어업이 3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

여 일일 평균 60톤에 이르고 있다. 어체도 기존 사례가 없을 정도의 마리당 평균 400g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2월까지의 채낚기어선의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7.2% 증가하였으며, 오징어 트롤어선의 하역량은 9,322톤으로 지난해 대비 87% 증가하였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620	'24.4.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정책 착수

- 노동조합의회(TUC)는 어업 분야의 양질 일자리 제공 정책을 착수하였다. 이에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어업인의 권익 실현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동 정책은 “최저임금 신설과 고용과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불법 어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차기 유력 대선 후보, 해양 분야 개혁 약속

- 제1야당인 민주당(the 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당대표는 테마항과 타코라디항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더 많은 선박의 운송을 유치하여 국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당대표는 항만의 각종 요금 및 부담금 경감, 항만 노동자 복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또한 항만 통관 문제는 수입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제·개정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불편한 사항을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1,045	'24.3.31

불가하였다. 이에 PNG 수산청은 중국 당국에 금수 조치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며, 중국은 양식산에 대해서만 금수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앞으로 대중국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902	'24.4.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일본의 수산업 진출

- 파푸아뉴기니의 새우 조업은 초창기 일본의 자본과 조업선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현재 선박 노후화와 자국민 보호 입장에서 일본은 조업에서 물러나고 시장 역할만 해오고 있다.
- 이에 일부 수산회사는 선박 노후화로 비효율적인 저인망 새우 조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하여 어업 발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中, 갑각류 중국 수입 허용

- PNG의 머드 크랩 및 바닷가재는 중국과 호주 간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오징어 링 튀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오징어 1마리, 달걀 1개, 우유 1/3컵, 소금 1/2 작은술, 밀가루 6큰술, 카레가루 3큰술, 파슬리가루 2큰술, 빵가루 1컵, 베이킹파우더 1/2 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몸통부분을 6mm 두께로 썰어 링 모양이 되게 만든다음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둔다.
- ② 밀가루는 곱게 체에 걸러 카레가루와 잘 섞고, 빵가루는 파슬리가루와 섞어 따로 준비한다.
- ③ 유리볼에 달걀 흰자를 넣고 우유, 소금, 후춧가루와 체에 걸러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살살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 ④ 오징어를 ③에 넣어 튀김옷을 살짝 입힌 뒤 빵가루를 한번더 입힌뒤 170℃의 기름에 튀겨낸다.



4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809달러

4월 11일 기준 815달러

4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79달러, WTI 가격은 85.86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90.56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815달러로 3월 11일(782달러) 대비 약 4%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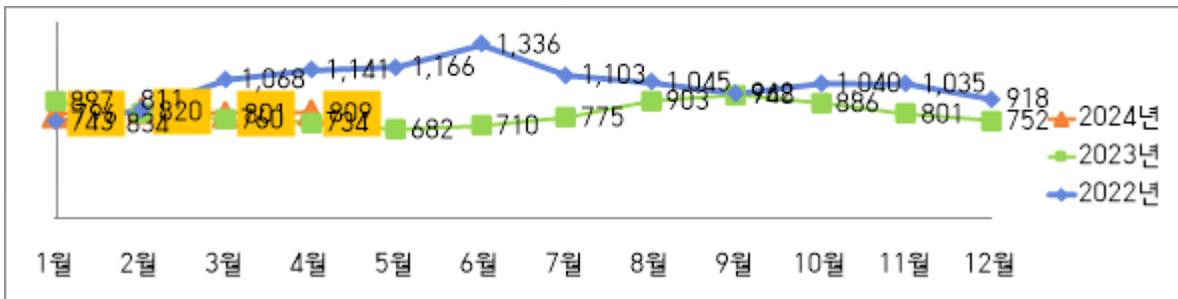
4월 평균(4.1~4.11) 가격은 809달러로 전월 평균(3.1~3.31)인 795달러 대비 약 2% 상승하였다. 전년 4월 평균보다 10% 상승하였고, 전전년 4월과 비교하면 29%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4.11) 가격은 804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1% 상승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2%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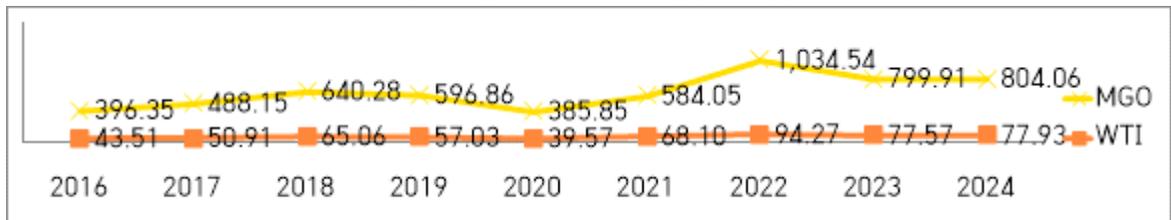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지역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정세 급변과 그에 따른 유가영향 등에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의 지정학 리스크 대비 및 타 산유국의 증산 여력, 이란이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으로 인하여 당초 우려한 것과 같은 유가 폭등은 없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보복이 강행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장기간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국제 원유 운송량의 20%를 감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달러

중서부태평양 2월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3월 가다랑어 거래는 대부분 톤당 1,325달러 선에서 체결되고 있다. 이는 3주 전 가격인 1,340달러 대비 1%만 하락한 수준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거래는 톤당 1,300달러에 체결되었다.

태국 통조림 가공업체의 수요는 적정 수준을 이어나갔다. 여러 가공 공장의 주문이 6월까지 예약된 반면, 다른 공장들은 원어를 하락한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한 주요 가공업체는 이들은 재고가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 1개월간 원어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초, 2023년 10월 이후 중서부태평양의 선망 어획량 증가로 인하여 대량의 참치 공급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결과 방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운반선이 원어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선주들은 가격이 톤당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였으나,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 어획량은 가다랑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하여 1월 대비 약 36%나 감소하였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EEZ와 공해상의 어업 노력량은 2월 대비 5% 상승한 3,507일이었다. EEZ에서의 조업 증가로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 사용량은 6% 증가한 3,181일이 되었다.

선단의 조업은 PNA 동부 수역에 집중되었다. 키리바시 EEZ에서의 조업은 전체의 27%를 차지하였으나, 1월에 비하면 약 3/4 정도의 수준이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조업은 1월 대비 대폭 증가하며

전체 조업의 16%를 차지하였고, 나우루는 12%, 파푸아뉴기니(이하, PNG)는 23%를 차지하였다. 그 외 수역에서의 조업은 감소하였다.

중서부태평양 2월 어획량은 9만 9,871톤으로, 1월 대비 5만 7,400톤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의 급감이 원인이었다. 수역별로는 약 2만 1,0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마이크로네시아가 유일한 어획량 상승폭을 보였고, 다른 국가의 EEZ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다음으로 어획량이 많은 곳은 키리바시와 PNG로, 각각 약 2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2월 선망선 일일 어획량은 약 29톤으로, 1월 대비 약 39%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일일 26톤으로, 1월 대비 약 17% 감소하였다. 다만 이는 2023년 2월 일일 어획량에 비하면 53%나 높다.

선단의 황다랑어 대형·소형 및 눈다랑어 어획량도 감소하였다. 2월 황다랑어 소형(9kg 미만)과 대형(9kg 이상)의 일일 어획량은 각각 0.9톤, 1.1톤이었다. 소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5% 감소한 0.4톤이며, 대형 눈다랑어는 0.03톤이었다.

이는 향후 수주 간 태국 가공업체로의 원어 공급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 하락 압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덧붙여, 소식통은 중서부태평양의 3월 어획량이 태평양의 악천후로 인하여 낮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가공 허브로 향하는 가다랑어 물량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다랑어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9일자, 22일자



日 2월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807엔

대만산 827엔...8개월 만의 800엔대 회복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 2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186톤(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 수입액 3억 2,700만 엔(53%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2,770톤(23% 증가), 수입액 170억 4,300만 엔(13% 증가), 가공품 수입량 3,731톤(미량 증가), 수입액 30억 8,900만 엔(6%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수입 단가는 807엔(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으로, 2023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은 kg당 827엔(12% 하락)으로, 8개월 만에 800엔대를 회복하였다.

가격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내의 초저온 냉동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양상 대기선 문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대만 선단의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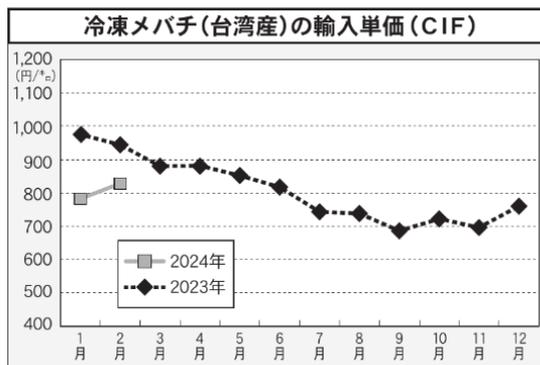
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이 호전되었다.

그런데도 한 관계자는 냉동고가 팍 찬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매년 3~4월에 지중해 연안국으로부터의 냉동 양식 참다랑어 필렛 입선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참다랑어가 우선하여 들어갈 냉동고 공간을 고려하면 여유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냉동고가 빌 때까지 장기간 대기하였기 때문에, 운반선의 운항 일정에 대폭 차질이 생겼다. “일본으로 갈 아카미(붉은살) 재고가 대만이나 중국에 쌓여 있다.”라고 관계자가 지적하는 등, 작년 냉동고 공간 부족 문제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선 문제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기온이 상승하여 핏감 수요가 증가하는 4월부터 일본 내 재고 소비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4월 4일자



일본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그래프
(2023년 1월~2024년 2월)



日 냉동 참치류 2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25톤

〈 2024년 2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4년 2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대만	330	12
	바누아투	-	-
	기타	109	299
	소계	464	317
황다랑어	한국	261	148
	중국	425	472
	대만	1,798	970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미국	-	-
	바누아투	36	26
	피지	-	-
	키리바시	-	-
	마셜제도	-	-
	기타	1,359	630
	소계	2,869	2,245
	눈다랑어	한국	259
중국		202	755
대만		1,928	1,438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세이셸		470	461
바누아투		52	17
기타		110	4
소계		3,020	2,901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대만	95	143
	호주	-	-
	소계	95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4월 4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00달러

어획량 호조 속에 안정세 유지

가다랑어 공급 호조와 꾸준한 수요로 인하여 만타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450달러였으나, 이후 몇 주 동안 계약은 50달러 상승한 가격에 주로 체결되었다. 그 결과, 3월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500달러로 집계되었다. 가다랑어 가격은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업체에 대한 원어 공급은 충분한 상태이다. 한 주요 업체에 따르면 어업, 특히 페루에서의 어업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금어기(veda)

는 1월 19일에 종료되었고, 동부태평양 선단은 그 이후로 가용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조업 중이다.

에콰도르 참치 생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한 무역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황은 2024년 초 이후 진전되고 있다. 2023년 말부터 대대적인 물 절약 조치를 취한 결과, 파나마운하청(이하, PCA)은 1월부터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 수를 24척으로 늘렸다. 이러한 조치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7일자

인도양 3월 가다랑어 가격, 톤당 1,325 유로

2월 대비 약 2% 하락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지 않고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톤당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인도양 통조림 가공업체는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양 가다랑어 거래는 대부분 톤당 1,325유로(약 1,434달러) 선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에서는 톤당 1,300유로(약 1,407달러)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3월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325유로로, 2월 가격 대비 약 2% 하락하였다.

인도양 참치 공급 상황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선사와 가공업체 간에 더 많은 긴장을 조성하고 있

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황 상태로 인하여 중개업체와 선사가 시장 가격 아래로 판매하려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스페인 가공업체는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으로 톤당 1,700유로(약 1,839달러)를 지급한다. 인도양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250유로(약 2,435달러)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500~2,600유로 수준이지만, 이러한 가격은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일부 상쇄되는 상태이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2일자



日, 수입 참다랑어 가격 급락 높은 재고와 수요 감소의 영향

횡감용 최고급 어종 중 하나인 수입 참다랑어가 동아시아 전역의 수요 부진으로 일본 내 도매 및 소매 시장에서 가격 하락세를 보인다.

일본 도쿄 도요시시장의 수입 신선 참다랑어 도매가격은 1월에 kg당 3,674엔(24.4달러)으로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8월보다 23% 하락하였다.

또한 수입 냉동 참다랑어는 1월 도매에서 kg당 3,394엔(22.3달러)에 판매되어 2022년 12월 정점 대비 1,000엔 가까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일본 수산 정보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도요시를 포함한 도쿄 중앙 시장의 냉동 참다랑어 잠정 도매가격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합쳐 3,084엔으로 더 급락하였다.

이 시장의 한 도매업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보다 훨씬 가파른 가격 하락세를 보인다. 하지만 가파른 가격 하락세에도 소매 시장에서는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연구 기관의 주간 소매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도쿄의 슈퍼마켓 소매 가격은 몰타에서 수입한 주토로(중지방 참치) 회가 100g당 798엔(5.32달러)이었다. 이는 2022년 12월의 1,280엔에 비해 약 40%의 가파른 하락세이다.

지중해 최대 참치 양식 국가 중 하나인 몰타의 냉동

참다랑어 필레가 크게 하락하였다. 1월 수입 가격은 평균 1,96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하락하였다.

도쿄에 본사를 둔 참치 수입업체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참치회 수요가 둔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알렸다. 한국은 일본 국내 시장과 중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해 지중해 양식 참치 조달을 놓고 일본과 경쟁하는 구매자였지만 최근 1년 동안 구매력이 약해졌다.

한국 내 참다랑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지중해 참다랑어가 일본으로 재수출되었다. 지중해산 참다랑어 공급량 증가 외에도 일본 국내 양식 참다랑어 수확량이 늘어난 것도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연평균 약 1만 5천 톤이었던 양식 참다랑어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약 2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수산청은 이달 말까지 2023년 출하량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출하량이 2022년 2만 526톤에서 2만 2,000~2만 3,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 종묘로 양식한 참다랑어의 출하량은 2020년에 2,975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1,114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본



연안의 참다랑어 자원은 회복하였다.

한편, 일본 내 냉동 참치 재고량은 2023년 말까지 총 3만 7,390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냉동 참다랑어 재고량은 총 2,507톤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지만, 전월 대비 10% 증가하였다. 참치 횡감용 냉동 눈다랑어는 1만 1,031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12월 한 달간 냉동 참다랑어의 냉장창고 반입량은 지난해보다 3% 감소한 1,395톤으로, 가격 하락이 소

비자 수요를 자극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쿄에 있는 수입업체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지중해에서 8,000~1만톤의 방목 참다랑어가 일본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냉동 참다랑어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참치 업계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몰타가 몰타 양식 참치 중국 시장 직접 진출 허용 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 중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3월 7일자

IOTC, 향후 3년간 가다랑어 어획량 한도 증대

2024~26년간 62만 8,606톤

인도양 조업선은 앞으로 수년간 더 많은 가다랑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는 최근 어획통제규칙(이하, HCR)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 선단의 어획량 한도를 62만 8,606톤으로 증대시켰다. 과학위원회는 2023년 12월 완료된 평가에 따르면 자원 상태가 건강하다고 밝혔다.

IOTC는 2016년 IOTC 관할 수역에서 처음으로 HCR을 채택하여 가다랑어 자원량을 목표 기준점(이상적 어업 상태) 및 한계 기준점(남획 지점)보다 나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2024~2026년 신규 쿼터는 이전 3년(2018~2022년)의 쿼터(51만 3,572톤)보다 많

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인도양 가다랑어 개체수의 70%가 남획 상태가 아니며, 녹색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암컷 가다랑어 번식 수는 최대지속가능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이상이며, 어업 강도도 선박이 어획 가능한 최대 용량 미만이다.

IOTC는 성명을 통하여 "새 자원평가는 최근 몇 년간 목표 기준점에 비하여 더 높은 생산성 및 높은 자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가다랑어의 생애 특성 및 유리한 환경 조건 때문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7일자



스페인 황다랑어 3월 말 가격, 안정세 유지

톤당 약 2,500~2,525유로

스페인으로 운송되는 황다랑어의 3월 가격은 부활절 연휴로 인하여 4월에 운송하는 거래가 둔화하면서 전월과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치 통조림 업계의 지표 역할을 하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소식통에 따르면 톤당 2,500~2,525유로 수준이다. 섭씨 영하 18도로 냉동된 황다랑어는 톤당 3,250유로 수준에 근접하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20kg 이상의 서부 태평양산 황다랑어는 최근 톤당 2,450유로에 거래되었다.

소식통은 올해 초에는 여름을 앞두고 2022년 여름 당시 가격(톤당 3,000유로 이상)만큼은 아니어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세는 완만한 수준으로, 이는 낮은 가다랑

어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수의 인도양 조업선이 모잠비크 해협 깊숙한 곳까지 향해 중이며, 일부는 남부 수역을 선호한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세이셸 근처 수역은 긍정적인 조짐을 보인다. 소식통들은 가다랑어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역의 황다랑어는 작년 대비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세이셸의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100유로 수준으로, 전년 3월 대비 다소 낮은 가격이다.

한편,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체어획량의 30% 미만을 차지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20% 감소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2,100달러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2일자

2024년 참다랑어 쿼터 논의한 ICCAT 회의

2023년 쿼터 약 4만 톤 이월

3월 5일부터 8일까지 마드리드에서 ICCAT 패널 2 회기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부 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에 대한 TAC 할당에 대해 논의하였다. ICCAT는 이 어종에 대한 2023년 쿼터 4만 570톤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다. EU는 2만 1,503톤을 할당받았다.

제출된 문서에서 각국은 자국의 주장을 설명하였다. 일본은 3,169.39톤을 요청하였고, 중국은 작년에 어획하지 않은 1.3톤을 포함하여 117.1톤을 요청하였다. 모로코 3,739톤, 이집트는 507.87톤으로 쿼터를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자국 어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작

년과 동일한 2,548톤의 TAC를 주장하였다

알제리 수산부는 2023년에 대한 보상으로 참다랑어 어선 5척과 추가 23톤을 늘려 2024년 국가 할당량을 2,046톤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대서양 참다랑어 어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얻었다. 노르웨이는 2024년에 작년과 동일한 쿼터인 386.4톤을 할당받았다. 소규모 영세 선박과 선망 어선 외에도 연승선이 이 어종에 대한 조업이 허용된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8일자



EU, 2023년 통조림 원어 수입 급락

2023년 참치 자숙 로인 수입 11% 감소

EU 가공업체의 2023년 원어 수입이 급감하였다. 특히 해외 선박의 냉동 원어 수입이 감소하였다.

유럽 가공업체는 지난해 계속해서 미온적인 수요를 유지하였고, EU의 2023년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1만 9,118톤을 기록하였다. 수입량 물량의 대부분은 1~3분기 동안 이루어졌고, 4분기에 수입된 물량은 2만 4,800톤에 그쳤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2,811유로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참치 통조림 매출은 최소 12% 감소하였다. 그 결과 가공업체의 원어 및 자숙 로인 수요는 모두 감소하였다. Atuna에 따르면 2023년 EU의 로인 수입량은 16만 5,571톤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가공업체들은 제품 공급망에서의 비용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EU의 2023년 전체 수입량 중에서 비(非) EU 선단 어획물의 물량은 8만 8,398톤으로, 전년 대비 34%나 감소하였다. 전체 수입 단가는 톤당 2,568 유로로 6% 하락하였다.

EU에서 관리하거나 EU 기업과 협력하여 생산하는 세이셸 국적 선망선단의 EU행 수출량은 1만 6,898톤으로, 전년 대비 38%나 감소하였다. 물량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향하였다.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20유로 하락한 톤당 2,631유로로 유지되었다.

비 EU 국가 중에서는 벨리즈와 중국만이 EU행 수

출을 각각 1,253톤, 491톤 증가시켰다.

한편, EU 가공업체는 2022년에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참치 자숙 로인을 기록적인 양으로 수입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스페인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입량이 전년도 대비 11% 급락하였다. 수입 감소는 가격 상승 및 유럽 시장 참치 통조림 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EU 가공업체는 2023년 자숙 로인 매입을 감축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두드러졌다. 2023년 동안 EU 자숙 로인 수입량은 16만 5,571톤으로 2022년 대비 1만 9,571톤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 두 번째로 적은 연간 수입량이다.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인 5,684유로이다.

지난 10년간의 가격 추세 그래프에 따르면, 자숙 로인 가격은 지난 2년간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급등하였다. 2023년에 주요 가공 허브의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6~8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방콕 가다랑어는 톤당 2,000~2,02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고, 만타에서는 톤당 1,825~1,92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에콰도르는 EU 자숙 로인 최대 공급국 자리를 지켰다. 이들의 2023년 EU행 수출량은 3만 9,771톤으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다. 평균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톤당 6,029유로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4일자, 27일자



美, 태평양 제도와 새로운 참치 어업 조약 체결

10년간 5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 외 추가 지급 예정

양측이 최근 갱신한 협정에 따라 미국 선망 조업선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참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협정은 2023년 6월에 만료되었으며, 최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SPTT(남태평양참치조약)의 일부인,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6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2024년 2분기까지 참치 어업 업계가 미공개 추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FFA(태평양도서국가포럼 수산기구)는 10개 국가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추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FA 사무총장은 SPTT가 태평양 도서국-미국 관계의 초석이며 "이번 양해각서는 IUU 어업 퇴치 및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연승·선망선단은 1988년 SPTT가 처음 도입된 이래 태평양 16개 제도의 EEZ에서 조업이 허용되었다. 지난 9월, 미국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어업 관리, 개발 및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6억 달러(2023년~2033년까지 10년간) 규모의 조약에 FFA와 서명하였다.

미국은 현재 151척의 연승어선과 12척의 선망어선이 WCPFC 협약 지역에서 참치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미국 선망어선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8일자

中 참치기업 Kaichuang, 2023년도 순이익 40% 급증

순이익 1억 4,800만 위안

중국 수산기업 Shanghai Kaichuang Marine International의 202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총영업이익은 3.79% 증가한 20억 2,000만 위안(약 2억 7,880만 달러)이다. 이들의 순이익은 39.8% 급증한 1억 4,800만 위안이다.

Kaichuang은 성과가 실적인 해외 매출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해외 매출은 2023년 총 10억 6,000만 위안을 기록하였고,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였다. 중국 내 매출은 9억 5,000만 위안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였다.

Kaichuang이 보유한 선망선 11척의 2023년 어획량은 2.65% 감소한 9만 3,200톤을 기록하였고, 남극크릴 어획량은 3만 9,200톤을 기록하였다. Kaichuang의 스페인 자회사인 통조림 공장 Hijos De Carlos Albo는 2.2% 증가한 7억 2,14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519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스페인 비고(Vigo)에 설립된 Albo의 새 공장의 통조림 생산량은 5,987만 캔을 기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4일자



中 CNFC, 23년 참치 판매 부진으로 순손실 기록 원어 가격 하락 대비 연료비 및 인건비 높은 수준 유지

CNFC社는 2023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참치 어획량 및 판매 부진과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국영 어업 회사의 주요 사업은 저온 선망 어업, 초저온 참치 연승 어업, 수산물 무역의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원양 어업에 집중되어 있다. 7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참치 연승 그룹이다.

CNFC의 2023년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0억 4,200만 위안(5억 5,913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모회사에 귀속되는 순손실은 1억 1,800만 위안(미화 1,632만 달러)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억 5,756만 위안(미화 2,180만 달러)의 이익(소급 조정 후)을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시장의 영향으로 저

온 참치나 참치 원어 가격이 하락했지만, 연료비와 인건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출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금융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참치 선단이 주로 조업하는 태평양에서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3년 대부분 기간 약 50% 감소하였다.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및 남태평양 주변 어장에서의 어획량은 4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대서양에서의 연승 조업은 좋았지만, 인도양 공해 어획량은 좋지 않았다.

주요 시장인 일본과 미국에서의 참다랑어와 날가다랑어 가격이 부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가다랑어 원어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8일자

스페인 참치 통조림 수출, 전년 수준 유지 2023년 수출량 약 12만톤, 단가 톤당 6,618유로

스페인 참치 통조림은 2023년에도 EU 및 국제 시장 수출량을 유지하였다. 스페인의 국내 참치 통조림 매출이 감소하고 가공업체들이 원어 매입을 감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의 2023년 상온 보관 참치 제품 수출량은 12만 381톤으로, EU 전체 수출량(26만 9,154톤) 중 45%를 차지하였다. 수출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12% 상승한 톤당 6,618유로의 고가임에도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 증가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팬데믹으로 사재기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했던 2020년도를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출 평균 단가는 지난 2년간 30%나 상승하였다. 2021년과 2023년 단가를 비교하면 톤당 1,550유로나 상승한 셈이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5일자



NGO, 中 연승선사 IUU·강제노동 관련 추가 폭로 Zhejiang Ocean Family社 선박 12척 대상

NGO 단체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은 중국 참치 연승선박에서 발생한 IUU 어업 및 강제노동 혐의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JF가 지목한 것은 중국 수산식품 거대기업인 Zhejiang Ocean Family社(이하, ZOF)이다.

EJF의 보고서는 ZOF社의 자회사인 Xin Shi Ji社 소유 및 용선 선박 12척을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EJF는 ZOF社가 국제 시장에서 잘 알려진 기업에 참치 원어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것이 구매자 측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에 걸친 ZOF社의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Xin Shi Ji社 선박 12척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하여 연승선의 선박명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상 선박 중 11척은 ZOF社가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선박이며, 다른 한 척은 ZOF社의 자회사가 Zhoushan Pacific Tuna Pelagic社로부터 용선한 선박이다. 해당 보고서는 공개된 정보, 선원의 증언 및 사진, AIS 위성 데이터 등 세 가지 주요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ZOF社는 중국 내·외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ZOF社의 기업공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20년에 이들은 중국 전체 참치 생산량의 14.63%를 차지하였다. ZOF社는 2021년 상하이주식거래소에 공개 상장을 시도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다.

AIS 데이터에 따르면 보고서의 대상인 연승선 12척 중 6척은 태평양 및 키리바시 EEZ에서 주로 조업하며, 다른 6척은 인도양 및 소말리아 EEZ에서 조업한다. 인터뷰 대상자 20인 중 12인은 상어 지느러미 채취 및 고래류 포획·도살이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보고서에는 외국인 선원이 상어·가오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나와 있다. 사진에 나온 상어 중에서는 보호종인 환도상어와 장완홍상어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에서는 이러한 해양동물 처리 및 방류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Xin Shi Ji社 선박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이하, IATTC)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등록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80%가 초과 근무를 경험하였고, 14시간 이상 근무를 자주 경험하였으며, 일부는 적절한 휴식 없이 이틀 이상 근무한 적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원들은 3~4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1,000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15개월간의 승선 끝에 우울증을 호소한 한 외국인 선원이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는 IUU 수산물의 공급망 연루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선박들이 “EU,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수산 시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Xin Shi Ji社 연승선 중 9척은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이는 해당 참



치 제품이 EU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Xin Shi Ji社 연승선 중 11척은 일본 참치 어업 관리 기구인 OPRT의 명단에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일본에 냉동 참다랑어, 눈다랑어, 새치를 수출할 수 있다.

보고서는 ZOF社의 수산물을 구매한 기업이 보고서에 명시된 IUU 어업 및 타 문제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의도는 아니며, ZOF社의 고객사 이름을 언급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ZOF社 수산물의 비중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하였다.

ZOF社는 다양한 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참치 자숙 로인을 산하 식품기업인 Ningo Today Food社와 Ningo Fengsheng Foods社에 공급한다. ZOF社의 냉동 참치는 대만 FCF社나 일본 미츠비시社 등의 주요 기업에 공급한다. 2018~2021년 동안 ZOF社는 약 3억 570만 달러 상당의 신선·가공 참치 제품을 판매했다.

보고서는 “수산업 및 국제 수산물 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ZOF社의 사업 파트너들이 구매한 제품의 생산이 IUU 어업 및/또는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된 특정 선박과 연관이 있는지 거슬

러 올라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지난 수년간 FCF가 IUU 어업을 행한 선박으로부터 수산물을 조달받았고, 불법 생산 참치가 범블비社를 통하여 미국 시장에 유입된다고 주장하였다. FCF는 ZOF社 산하의 수많은 어업 및 가공 회사와 거래 중이며, 통계적으로 어업법 위반 사례가 있는 선박과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EJF는 중국 당국이 불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연승선 선주, 선장 및 관련 선원의 제재를 요청하였다. NGO는 또한 중국이 승인된 선박 목록을 업데이트 및 공개하고, ILO 어업 협약 C188 규정을 비준하여 선상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EU, 미국, 일본, 한국의 입법 및 행정 당국이 보고서에 열거된 연승선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EJF는 국제 수산물 구매자들이 해당 기업 및 선박과 연루된 거래를 모두 재검토하고, 이러한 제품들의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3일자

Table 9: Summary of companies linked to ZOF through trade

Companies bought from ZOF	The company's/group's brands (if applicable)	Retailers selling these brands (if applicable)
Maruha Nichiro Corporation	Maruha Nichiro	Rakuten, Amazon
UOICHI Co.		
Hiroichi Co.		
SNB International Co., Ltd.		
Tri Marine International (PTE), LTD (Tri Marine Group)	Ocean Naturals	Walmart, Amazon
Kibu Pte. Ltd. (Grupo Frinsa)	The Nice Fisherman	Iceland
	Frinsa La Conservera	Marks and Spencer
	Frinsa Proteína Natural, Ribeira, Seaside	
	Canned fish and seafood with retailers' brands	Carrefour, Alcampo, Lidl, El Corte Inglés
Jealsa Rianxeira S.A.U.	Rianxeira, Ecuris, Mare Aperto, Robinson, Soluco la Mer, Chancerelle Frères	
Hijos de Carlos Albo S.L.U	ALBO	Eroski, Carrefour
SMU S.A.		

(ZOF社와 거래 중인 기업 명단 요약)



EU 참치 어선 정보 관련 가이드 출시

일반인·언론사 대상 정보 접근 목적

다수의 NGO 및 유럽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공공의 권리를 주창하기 위하여 설립한 그룹인 ‘Access Info’는 최근 시민사회, 언론인, 일반인이 EU 참치 어선 활동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동 그룹의 궁극적 목표는 해양자원 보호 목적이 국내 및 국제 규정에 따라 정부와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선박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및 이들의 합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이름의 해당 문서는 참치 어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환경정의재단, Oceana, 푸 자선재단, WWF 등이 Access Info와 협업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UN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참치 어선을 비롯한 어선들이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도입된 FAO의 ‘국제 어선 기록(Global Record of Fishing Vessels)’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지원한다. EU는 또한 엄격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들은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및 ‘연합어선명부(Union Fishing Fleet Register)’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가이드는 세계 참치 부문에서 널리 논의되어 온 주제인, EU 기업의 참치 선단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문제를 탐구하였다. Access Info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기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소유권을 두고 법적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에 다수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계층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2년 보고서는 또한 연안국의 느슨한 어업 규정과 유럽에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비EU 국가의 통제력 문제로 인하여 참치 및 기타 IUU 수산물이 계속해서 EU로 재유입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참치 선단 보유국인 스페인을 포함한 EU 선단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현재 EU 내 모든 국가가 ‘수익적 소유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 요청자의 신원 및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는 언론인만 해당 명부에 접근할 수 있고, 키프로스 및 아일랜드에서는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에서는 일반인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7일자



아메리칸사모아, 中 참치 선단으로부터 EEZ 보호 추진

美 선망선단 축소로 中 선단 위협

아메리칸사모아는 최근 EEZ 내 중국 선단의 조업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렸다. 미국령인 아메리칸사모아는 GDP의 85%를 스타키스트 가공 공장에 의존하고, 공장에 공급되는 참치의 상당수가 미국 선단이 어획한 참치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의 아메리칸사모아 지도자는 3월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위원회(이하, WPRFMC) 198차 연례회의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 수도인 파고파고(Pago Pago)에 거점을 둔 소형 선박 및 미국 선망선단은 가공 공장에 참치를 공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선망선단은 규모가 급감하는 추세이다.

WPRFMC에 따르면,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은 2007년 날개다랑어 5,000톤을 어획하였으나, 현재 어획량은 1,000톤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 국적 선단은 해당 수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은 2007년 약 100척이었으나 현재는 약 500척까지 증가하였다.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이하, WCPFC)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의 관할 수역에서의 미국 선박 수는

192척, 중국 선박 수는 585척이다.

아메리칸사모아 측은 중국 선단이 국제적으로 IUU 어업 혐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중국 선단이 인근 도서국으로 진출하면서 아메리칸사모아가 IUU 어업에 취약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 당국은 “중국 선박의 무분별한 조업으로부터 영해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 해양·야생동물자원국장 Taotasi Archie Soliai는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이하, NOAA)에 보낸 서신에서 스타키스트 공장에 원어를 공급하는 미국 국적 선망선을 아메리칸사모아에 거점을 둔 선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Soliai 국장의 서신은 미국 국적 선망선 ‘Evelina da Rosa’호의 국적이 변경된 이후에 나왔다. 국장은 미국 선단의 축소가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Soliai 국장은 태평양 도서국 지역사무소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도서국 어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4월 5일자



캐나다 연구진, 참치 먹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 변화에 따른 먹이 발견 연구

국경을 초월한 과학 협력으로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 식량 공급원이기도 한 날개다랑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수십 년 동안 최상위 포식자들의 기후와 먹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 모양, 색깔, 크기, 행동 등 30가지 이상의 특성을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날개다랑어를 등 포식자에게 잠재적으로 맛있는 해양 생물종을 분류하였다.

연구진의 목표는 기후 변화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먹이가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날개다랑어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수백 종의 먹이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특성을 모두 갖춘 먹이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진은 해양 포식자가 기후 변화 영향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

바다는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주보다 덜 탐사되고 있다. 연구진은 1만 시간 이상을 투입하여 해양 환경에서 발견되는 521종의 어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특성에 대한 15만 5,000개의 고유 정보를 생성하였다.

* 출처: Phys.org, 2024년 3월 7일자

세계 해양 수온, 평균 대비 약 1도 높아 낮은 수온 선호하는 참치 종에 영향 가능성 존재

적도 기준 남위 60°와 북위 60° 사이에 있는 전 세계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1982~2011년 동안의 평균 온도 대비 섭씨 0.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온도의 물을 선호하는 참치 종의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해양대기청(이하, NOAA)에 따르면, 3월 9일 시점 해수면 평균 온도는 섭씨 21.2도이다. 이는 2023년 대비 0.3도 높은 수치이다. 메인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의 기후 분석 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도 역사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은 해였으나, 올해는 이미 그보다도 높은 셈이다.

2023년 9월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의 생태계 및 기후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상승한 해수면 온도가 참치 어획량 및 참치 어체 크기에 영향을 미쳐 왔다. 어획량은 증가하였으나 참치의 어체 크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1일자



EU-필리핀, FTA 협상 재개

참치 제품 관련 항목 협상 포함 예정

EU와 필리핀은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 더 많은 참치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도 새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필리핀은 현재 참치 통조림에 대하여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 혜택을 받고 있다.

EU와 필리핀은 2015년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7년에 또 다른 협상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필리핀의 이전 정부는 당시 정부 수장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EU가 자국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EU의 무역 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참치 제품의 자유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2022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필리핀의 현 정부는 여러 주요 이슈에 관하여 EU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U는 성명을 통하여 “2023년에 EU와 필리핀은 FTA 협상 재개 준비를 위한 실태 조사를 개시하여 2023년 말에 결론을 내렸고, 협상을 재개하기에 적절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EU 의회와 이사회는 표결을 통하여 참치 통조림 등의 제품에 대한 특혜를 2027년까지 4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현행 GSP+ 제도를 갱신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제도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20%의 관세가 적용된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9일자

세이셸, UN 공해 조약 비준

참치 자원 보호 목적

세이셸 국회가 3월 중순, UN 공해 조약을 비준하면서, 팔라우와 칠레에 이어 해당 조약에 비준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이다.

UN 공해 조약의 정식 명칭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생물다양성 조약(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reaty)’이다. 해당 조약은 2023년 9월 이후 88개국이 서명하였다. 조약의 발효에는 각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참치 산업은 세이셸에 있어 관광 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 부문이므로, 세이셸은 이번 조약 시

행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는 총 92척의 선망선과 연승선이 각국 국적 하에 조업 중으로, 이중 상당수는 해외 선주가 소유한 선박이다.

세이셸은 대만, EU와 EEZ에서 어업을 허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세이셸의 유일한 참치 가공 공장은 타이유니온이 소유한 IOT 통조림 공장이지만, 세이셸 수산청 측은 세이셸 중소기업의 선어 가공 및 로인 가공 등 다른 수단도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1일자



EU 올리브유 가격 3% 하락 가뭄·홍작으로 추가적 하락 가능성 낮아

2024년 2월 EU 주요 생산국의 올리브유 가격은 3% 하락하였다. 그러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스페인이 여전히 가뭄을 겪는 중이고, 이것이 4월에 시작될 올리브 나무의 성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올리브위원회(이하, IOC)에 따르면 스페인 하엔(Spain), 이탈리아 바리(Bari), 그리스 하니아(Chania)는 EU에서 가장 중요한 세 시장으로, 전세계 올리브유의 60%를 생산한다. 이 세 도시의 올리브유 가격, 특히 스페인의 가격은 전세계 올리브유 생산국의 지표 역할을 한다.

2022년 4분기 이후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하, EVOO)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주요 생산 지역에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2023년 10월에는 수확량이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생산 지역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11월 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생산량이 2023-2024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의한 홍작으로 인해, 다가올 수확기의 전

망은 그리 좋지 못하다. 이는 참치 통조림 원자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소식이다.

IOC에 따르면 2월 5일 스페인 하엔의 EVOO 가격은 톤당 8,725유로(약 9,499달러)로, 1월 중순에 기록한 최고점 가격인 9,025유로(9,826달러) 대비 3%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전년도 동기 대비 68%나 높은 가격이다.

이탈리아 바리의 EVOO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월 가격과 동등한 수준인 톤당 9,680유로(약 10,540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 가격과 비교하면 58% 높다.

하니아의 EVOO 가격은 1월 가격 대비 3.5% 하락한 톤당 8,300유로(약 9,038달러)이다. 포르투갈 생산자들은 EVOO를 유럽 최저가인 톤당 8,490 유로(약 9,245달러)에 판매하는데, 이는 1월 가격 대비 약 2.5%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8일자



FFA, 항만국 참치 선단 모니터링 강화

전자선박등록 및 전자항만국관리 시스템 도입

태평양도서국포럼(FFA)은 전자항만국관리(이하, e-PSM) 전자선박등록(Electronic Vessel Register)이라는 2개의 신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들의 참치 선박 모니터링 증진에 나섰다. 해당 시스템은 선박 등록을 쉽게 해 주고 IUU 조업 근절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 온라인 포털은 선박 운영 측의 등록 과정을 쉽게 하여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보장한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문서 업로드, 신청

상태 온라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FAO의 항만 국가조치협정(PSMA)에 근거하여 정해진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e-PSM은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다. 통가는 e-PSM을 적용하는 첫 국가가 될 예정이며, 피지는 해당 시스템의 시범 운영 초기 단계에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1일자

英, 2024년 대서양 참다랑어 조업 계획

66.15톤 쿼터 대부분은 시험 어업용

해양관리기구(MMO)는 오늘 영국 수역의 대서양 참다랑어(BFT)에 대한 올해 조업 계획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66.15톤 할당량에는 여가 허가 제도용 16톤과 시험 상업 어업용 39톤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영국의 상업적 혼획 및 태깅 프로그램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서양 참다랑어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수산 관

리 기구인 국제 대서양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 (ICCAT)는 현재 영국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의 할당량 사용 방식에 대한 결정은 BFT 어업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수산법 2020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상업 및 여가 어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출처: 영국 정부, 2024년 3월 20일자



페루 오징어 부문, 사상 최대치 기록 전망

어획량은 36%, 수출량은 65.1% 증가

페루의 오징어 어업은 2023년에 상승세를 보이며 총어획량과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페루 생산부는 발표하였다.

특히 어획량은 2022년 45만 7,364톤에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62만 1,852톤을 기록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오징어 어획량의 7.5%에 해당하는 4만 6,700톤이 국내 시장에 할당되었다. "이는 현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균 도매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산부는 밝혔다.

2023년 수출용 냉동 오징어 제품 생산량은 45만 3,100톤으로 전년의 26만 9,100톤에서 68.4%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 데이터에 따르면 오징어 수출량은 2023년 43만 9,400톤, 8억 3,240만 달러로 물량은 65.1%, 금액은 43.1%가 증가하였다. 생산부는 "이는 올해 페루 어업 수출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며, 어업 부문이 네 번째로 큰 외환 수입 기여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고 지적하였다.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중국이 2억 8,240만 달러 (33.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1억 4,040만 달러, 16.8%), 스페인(1억 2,130만 달러, 14.6%),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 출처: Undercurrent, 2024년 3월 8일자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어황 양호

오징어채낚기선 일일 30톤씩 생산

어획량 보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현재 오징어 조업은 남위 46도 이남의 자원으로 인해 채낚기 선단은 하루 평균 30톤의 어획량과 좋은 사이즈로 만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5일까지 전체 어획량은 총 7만 4,91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주요 어종은 일렉스 오징어이다. 이번 시즌 조업 중인 65척의 채낚기선박의 어획량은 6만 3,037톤으로 2023년보다 45% 증가하였으며, 트롤 어선은

9,322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다.

채낚기조업선사와 과학자들에 따르면 파타고니아 하부 수역은 여전히 어획량의 주요 공급지이다. 악천후와 강풍으로 인해 채낚기 선단의 조업이 제한되었지만, 일부 선단에 승선한 옵서버들은 풍족한 어획 현황을 지속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다음 주 중으로 남위 44도선 북쪽의 북 파타고니아 오징어 자원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 출처: MercoPress, 2024년 3월 20일자



中 살오징어류 가격, 전월 대비 10~20% 상승

中 선단 홈볼트오징어 어획 부진 원인

중국 춘절 연휴 이후에도, 중국 선단의 적도상 소형 홈볼트오징어(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획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무역사 소식통은 “1일 1척당 1~2톤 정도밖에 어획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1미당 300~500g의 중국 국내 가격은 전월 대비 20% 상승한 1만 5,500~1만 6,000위안이며, 500g~1kg은 10% 상승한 1만 2,500위안으로 전해졌다.

남미에서는 페루에 의한 홈볼트오징어 어업이 부진하다. 어장으로 왕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품질도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무역사 소식통은 칠레에서의 어업은 “양륙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출어를 하면 어획은 있으나, 3월 이후는 강풍으로 인하여 조업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EEZ 밖에서 중국 또는 한국 선단이 조업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경우, 1일 1척당 25톤을 어획하는 등 “어획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무역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1월 어획량은 1만 5,298톤, 2월 어획량은 4만 6,252톤을 기록하였다. 최근은 M 크기(1미당 300~400g)가 증가하는 등, 어체가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26일자

일렉스 오징어 자원량, 해수면 온도와 관계있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오징어 자원감소에 영향

사이언스다이렉트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아르헨티나 동쪽 공해와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제도 EEZ 북쪽에서 대만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조업 일지를 통하여 남서대서양 일렉스 오징어 어업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1년 동안의 일렉스 오징어의 자원량 데이터와 지역 해양 분석을 결합한 결과 남서대서양 1~2월의 오징어 자원량과 해수면 온도(SST), 3~5월까지의 와류 운동 에너지(EKE)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층 분석 결과,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결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오징어의 자원량 감소에 영향을 준다.

남서 대서양에서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은 준 순환 변동을 보였다. 1999, 2007, 2014, 2015년에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2004, 2009, 2010, 2016년에 가장 적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조업 기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조업 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의 일일 어획량을 합산한 결과 대만 오징어 채낚기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34.4%~94.1%를 차지하였다.

* 출처: MercoPress, 2024년 2월 15일자



아르헨티나, 중국 어선의 EEZ 진입 허용 259척의 선박이 지난 10년간 어획량 800% 증가

아르헨티나 해군은 7미터 높이의 파도와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대규모 폭풍을 피하고자 중국 어선 259척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폭풍이 끝나자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중국 선박이 공해 수역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하였다.

3월 초부터 해상 합동 사령부와 협력하여 해군 항공기가 아르헨티나 EEZ에서 조업을 시도하는 선박이 없도록 조업선을 추적하였다. 이는 야간 위성 사진과 함께 선박의 속도, 항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해군 용어로 '무해통항권'으로 지정되어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르헨티나 해군에 따르면 이 특별한 경우 중국의 주요 해양 당국은 EEZ 바로 바깥쪽인 201마일에서 조업 중인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어선은 어로 활동을 삼가고, 어로용 조명을 모두 끄고, 모든 어구를 갑판에 안전하게 격납하는 한 연안 국가 수역으로 항해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해상교통

사령부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임무, 특히 관할 수역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공중과 해상에서 발휘하는 임무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 환경정책연구소는 글로벌 피싱 위치의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중국 오징어 조업선의 어획량이 약 800% 증가하였으며, 201마일로 알려진 EEZ 경계선 가장자리에서 조업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조업선이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무단침범이 적발되어 체포되는 때도 있으나, 오징어는 남대서양을 순환하는 이동성이 강한 두족류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조업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르헨티나 어업의 주요 수출품은 오징어 외에도 대구, 이빨고기 등이 있으며, 이는 중국 조업선도 매우 탐내는 어종이다.

* 출처: MercoPress, 2024년 3월 9일자



오징어 전쟁...대서양 중국선단 IUU 대응 강화

美-아르헨티나 간 불법 중국 어선 소탕 작전 돌입

4월부터 미국 해안경비대와 아르헨티나 해군은 대서양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에 맞서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는 중국 선박이 자국 영해에서 규제 없이 대규모 불법 침입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미 국가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남서 대서양의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NGO 글로벌 피싱 위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척의 원양 어선이 중국 국기를 달고 조업하고 있으며, 남서 대서양에서 약 400척이 아르헨티나 오징어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종을 주로 조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서 대서양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은 2013년 500㎢당 6만 1,727시간에서 2023년 38만 4,046시간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1986년 이후 자국 해역에서 조업하던 외국 국적 선박 80척을 나포하였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대만의 침몰 선박도 포함된다.

중국 어선을 중심으로 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또는 IUU 어업에 맞서기 위한 미국-아르헨티나 합동

작전은 해양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에 미국은 IUU 어업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작하였으며 에콰도르, 페루, 칠레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해군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오징어 불법 조업을 하던 루옌원유(Lu Yan Yuan Yu)호를 적발한 후 추격하여 결국 침몰시켰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무전을 포함한 시각 및 청각 신호를 모두 보내 연락을 취하였으나, 중국 어선은 응답하지 않고 집어등을 끄고 공해 수역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해안경비대는 경고 사격을 하였지만 조업 어선은 추격 과정에서 해안경비대 함정을 들이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조업 어선에 발포하였으며, 불법 조업선은 침몰하기 직전에야 멈췄다. 해안경비대는 선장을 포함한 4명을 구조하였으며, 나머지 선원 28명은 인근 중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 출처: The skitts & nevis observer, 2024년 3월 30일자



日, “동해 살오징어 어장, 서해로 이동 추정”

논문 바탕으로 살오징어 어획량 감소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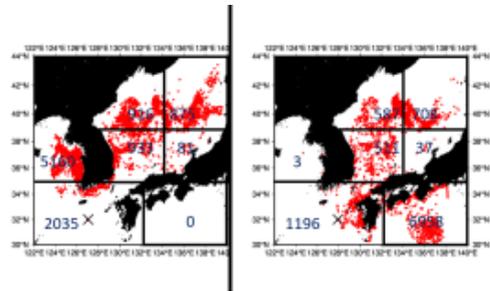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는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 대기해양환경 연구센터 측에 한국과 일본 EEZ 간 ‘경계왕래성 자원’인 살오징어의 어획량 동향 및 영향 평가를 요청하였고,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홋카이도 기선련의 하라구치 세이지 씨에 따르면, 한국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시즌에는 동해와 서해가 거의 반반이 되었고, 2022년 시즌에는 서해가 동해를 거의 넘어서게 되었다. 2023년 시즌의 경우는 9월 한국 방문 당시 동해 어획량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현지 관계자에게 들었기 때문에, 서해 어획량이 동해 어획량을 완전히 넘어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해에서의 어획량 증가는 약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에서 어획되는 「동계 발생군」이라고 불리는 살오징어의 어획량은 2016년을 경계로 크게 감소하여, 지금까지도 점차 계속되고 있다. 서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도 동계에 부화했다고 생각되고 있으므로, 직관적으로는 살오징어의 주어장이 서해로 이동해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연구 논문(송지영, 2017)에 따르면, 서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는 제주도 남방 수역에서 부화한다고 간주한다. 해당 위치에서, 컴퓨터 상에 살오징어를 본뜬 입자를 어떠한 조건으로 제주도 남방 수역으로부터 흘리는 실험을 하였다. 시작점은 북위

32도·동경 127도와 북위 32도·동경 128도의 2점으로, 202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240일 후(약 8개월 후)의 입자 분포와 관계 해역을 7개로 나누어 각 입자 수를 그림에 표기하였다.



(각 1만 개의 입자를 X표시의 동경 127도(좌), 128도(우)에서 흘린 시뮬레이션 결과, 숫자는 입자 수)

경도가 1도, 즉 시작 위치에서 100km 동쪽으로 이동한 것만으로 입자의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 동경 127도에서 흘러간 입자의 약 절반이 서해로 이동했고, 태평양 쪽으로 이동한 입자는 제로였다. 한편, 동경 128도에서 흘러간 입자는 약 70%가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동경 128도에서 흘러간 입자는 대부분이 쿠로시오 해류에 쓸려 갔기 때문이다. 즉, 산란과 부화가 쿠로시오 유역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태평양 쪽의 살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왜 살오징어는 2016년 이후 쿠로시오 유역이 아니라 100km 정도 떨어진 서쪽의 제주도 남쪽 수역에서 산란하게 된 것일까? 살오



징어의 산란은 섭씨 19도 이상의 수온이 필요하고, 부화한 유생에도 같은 정도의 수온이 필요하므로, 산란에 적합한 수역이 쿠로시오 유역임은 틀림없다. 서쪽으로 갈수록 수온은 확실히 낮아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산란이 불가능하거나, 산란해도 유생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이 점이 일본 주변에서의 어획량 감소뿐만 아니라, 오징어 전체의 자원량 감소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기선련이 동 연구소의 야마구치 타다노리(山口忠則) 연구원의 한국 동향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연근해 살오징어 어업에서 서해

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과학연구기관은 2022년 여기까지 한국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에서 서해 어획량의 비중을 1% 미만~20%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선련 측은 한국 관리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동경 128도 이서에 조업 수역이 한정된 대형 트롤, 서해 트롤, 그리고 서남해구 중형 트롤의 2017년 여기부터 2022년 여기까지 서해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34.9~53.8%로 추정되며, 여기에 근해자망 어획량을 추가하면 40%~80%까지 도달한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3월 25일자, 4월 5일자

日 2023년 냉동 오징어류 수입량, 8% 감소

아르헨티나산 42% 증가 등 남미산 대체재 주목

2023년 일본 냉동 오징어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0만 1,659톤이었다. kg당 단가는 13% 상승한 671엔이다. 어획량 부진과 함께 엔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국내에서의 살오징어 어획량 부진이 계속되는 와중, 최근 수년간은 세계 각지에서의 대체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 오징어 중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산 일렉스오징어, 홉볼트오징어(아메리카 대왕오징어) 등을 포함한 살오징어류 수입량은 7% 감소한 4만 3,698톤이다. 중국산의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작년 동안 중국의 살오징어류 어획량은 대폭 감소하였다.

페루 선단의 오징어 어획은 상반기에 호조였으나 7월부터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산은 어획부터 양륙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페루산에

비하여 품질이 좋으므로, 소식통은 “냉동 필렛은 칠레에서 매입하였다.”라고 밝혔다.

국가별 살오징어류 수입량의 경우, 아르헨티나산이 42%나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아르헨티나 EEZ에서의 일렉스오징어 어기가 증가하여 어획량도 늘어났다. 그 외, 칠레산 수입량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였고, 페루산은 7% 감소, 미국산은 40% 감소하였다.

냉동 빨강오징어(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수입량은 36% 감소한 2,397톤으로, 그중 중국산은 35% 감소한 2,387톤, kg당 단가는 11% 상승한 851엔이다. 수입 빨강오징어는 홉볼트오징어에 밀려, 일본 시장에서의 비중은 감소 추세라고 일본 무역업체 소식통은 전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28일자



러 과학자, 25년 명태 쿼터 12% 증가 권고 극동 명태, 26만톤 많은 255만톤...낮은 가격 권고

러시아 과학자들은 극동 지역의 명태 총허용어획량 (TAC)을 2025년 255만톤으로 하여 2024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권고하였다.

태평양수산연구센터(이하, TINRO)는 명태 가격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H&G 생선의 경우 톤당 1,000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쿼터로 하락도 제시하였다. TINRO는 최근 공개 토론을 통해 명태와 대구를 포함한 2025년 주요 상업용 어종에 대한 TAC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오호츠크해, 특히 오호츠크해 북부, 캄차카 서부 및 캄차카-쿠릴 하부 수역의 명태 어업에 대해 21%의 큰 폭의 TAC 증가가 제안되었다. 서베링해 명태 어획 권장량도 3% 증가하였다.

권장 TAC는 2024년 TAC보다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수치이다.

러시아 당국은 일반적으로 권고안에서 약간의 조

정을 거쳐 TAC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만, 2023년과 2024년의 TAC는 과학자들의 권고안대로 각각 206만 톤과 229만톤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수산업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TAC를 통상적인 10~11월보다 이른 2023년 9월 12일에 발표하였다.

TAC 권장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산업자들이 배정된 쿼터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러시아 조업선은 2023년에는 쿼터의 22%를 미소진하였으나, 2022, 2021년, 2020년에는 각각 쿼터의 91%, 86%, 89% 소진하였다.

러시아 H&G 명태의 CFR 중국 기준, 3월 체장 25cm 이상의 평균 가격은 톤당 950달러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금지 조치의 결과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3월 26일자





러 최대 어기 종료...명태 100만 톤 이상 어획

3/31까지 오호츠크해에서 명태 78만 톤 이상 어획

4월 9일 모스크바 시각 17시 러시아 최대 조업 어기인 오호츠크해 "A" 어기가 종료되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00일 어기 동안 오호츠크해의 명태 어획량은 작년보다 3.2% 증가한 83만 톤을 넘어섰다. 극동 수역의 모든 지역에서 명태 어획량은 작년보다 8.6% 증가한 105만 톤을 넘어섰다.

"조업이 한창일 때 최대 115척의 트롤 어선이 조업에 참여했고, 일일 명태 어획량은 1만 톤을 초과하였다. 현재 오호츠크해의 총허용어획량(TAC)은 87% 소진된 상태이다. "B" 어기의 남은 쿼터는 약 9~10만 톤이다. 조업 조건이 양호할 시 총허용어획량의 98~99%의 소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호츠크해의 명태 어획량은 95만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명태어업 협회장은 말하였다.

"러시아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 증가 역학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1분기 실적에 이어 어민들은 러시아 시장에 10만 톤 이상의 명태 제품, 즉 어획량의 약 26%를 공급하였다. 이는 지난해 시작한 극동 명태 홍보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인의 명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라고 명태어업 협회장은 말하였다.

명태는 러시아 전체어획량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주요 상업 자원이다. 작년 명태 어획량은 196만 톤으로 지난 25년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 모든 어장의 명태 TAC는 228만 5천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명태어업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 어민들은 연말까지 200만 톤 이상의 명

태를 어획이 예상되어 지난해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31일 기준으로, 러시아 조업선은 오호츠크해에서 총허용어획량의 72.3%인 78만 2,400톤의 명태를 어획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동기간 기준으로는 77만 5,300톤(TAC 77% 소진)을 어획하였다. 보고 기간 동안 명태 조업은 대형선 32~42척, 중형선 17~26척 등 총 52~67척의 선박이 조업하였다.

"A"어기의 마지막 주 서 캄차카 하부 수역에서는 5~21척의 대형 선박과 5~14척의 중형 선박이 각각 선박 일당 188.9톤과 58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캄차카-쿠릴 하부 수역에서는 1~4척의 중형 선박이 하루 75.8톤을 어획하였다. 이 수역의 어획량 누계는 20만 600톤(TAC의 75.3%)에 달하였으며, 지난해 동기간에는 10만 4,100톤(TAC의 41.4%)을 어획하였다.

어기가 끝날 때까지 서캄차카 하부수역의 총어획량은 50만 톤(전체 TAC의 82.1%)으로 지난해 동기간에는 50만 6,200톤(88.2%)이었다.

북오호츠크해 하부 수역에서 대형선은 21~32척, 중형선은 9~13척이 일일 척당 149.3톤과 51.5톤을 각각 어획하였다.

동사할린에서 조업 중인 트롤선 1척은 척당 하루 176.9톤을 어획하였다. 이 지역의 어획량은 1만 1,000톤(8.4%)으로 2023년 같은 기간에는 1만 5,500톤(14.1%)을 어획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4월 10일자, Fishnews, 2024년 4월 2일자



러시아, 3/18 기준 오호츠크해 명태 66만 톤 어획

TAC 약 61.1% 소진

3월 12일까지 러시아의 명태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75만톤,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50% 증가한 12만 2천 톤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극동 수역의 명태와 태평양 청어 어획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고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밝혔다.

명태 어획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75만 톤,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50% 증가한 12만 2,000톤으로 보고되었다.

서베링해 해역의 2024년 명태 총허용어획량(TAC)은 70만톤, 오호츠크해 북부 해역은 34만 2,500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호츠크해 북부 수역의 태평양 청어 TAC는 31만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러연방 수산청은 러시아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선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극동 지역의 명태 가격은 3월 11일 기준 kg당 86 루블(0.94달러)로 전주 대비 6.5%, 올해 초 대비 23.2% 하락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러시아 중부 지역의 명태 가격은 연초 대비 14.2% 하락한 kg당 115루블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산청은 2024년 러시아의 총어획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14만 톤에 달했으며, 극동 수역의 하역량은 96만 4천 톤으로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부 어획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만 6,000톤, 아조프-흑해 어획량은 6.5% 증가한 9,100톤에 달하였다.

3월 18일 기준으로는, 러시아 오호츠크해에서 66만 1,300톤의 명태를 어획하여 TAC의 61.1%가 소진되었다. 2023년 같은 날짜 기준 어획량은 65만

5,600톤(65.1% 소진)이었다. 명태 어업에는 49~59척의 대형 선박과 30~40척의 중형 선박을 포함하여 85~97척의 어선이 조업하였다.

셀리코프 만의 유빙이 많이 제거되었다. 북쪽과 북서쪽의 유빙이 해안에서 멀어지고 북 오호츠크해 하부 수역 얼음 가장자리가 강하게 부서져 중소형 얼음 밧으로 변하였다.

서 캄차카 하부 수역에서는 27~37척의 대형 선박과 15~24척의 중형 선박이 각각 일일 174.4톤과 59.7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총 24만 1,100톤(70.4% 소진)이 이 조업 수역에서 어획되었으며, 전년도에는 35만 9,800톤(111.4% 소진)이 어획되었다.

캄차카-쿠릴 하부 수역에서는 2~5척의 대형 선박과 1~5척의 중형 선박이 각각 척당 124.2톤과 77.4톤의 일일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 조업 수역의 어획량은 총 19만 3,100톤(72.5% 소진)이다. 지난해에는 9만 9,700톤(39.7% 소진)을 어획하였다.

두 수역에서는 총 43만 4,300톤(71.3% 소진)이 어획되었다. 작년에는 45만 9,600톤(80.1% 소진)을 어획하였다.

북 오호츠크해 하부 수역에서는 대형 어선 15~26척과 중형 어선 9~15척이 일일 140.9톤과 57.7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 수역의 총어획량은 21만 7,800톤(63.6% 소진)이었다. 작년 동일 기간에는 18만 4,100톤(57% 소진)을 어획하였다.

동사할린 하부 수역의 어획 변동이 없었다. 어획량은 9,200톤(7% 소진)을 유지하였다. 지난해 동일 기간에는 1만 1,800톤(10.8% 소진)을 어획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3월 15일자



러, 2030년까지 어획 생산량 600만 톤 목표

어선단 갱신, 정어리 자원 동향, 크릴 조업 재개 등 근거

일리아 세스타코프 러시아 수산청장은 러시아 어업 발전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러시아 수생생물자원 어획량 600만 톤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어선단의 갱신에 따른 어업 효율 향상, 정어리 자원 동향, 남극 크릴 조업 재개 등이 그 근거이다.

또한 2030년까지 수산복합개발전략에 따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고차 가공 비중을 50%로 증가시키는 등 수산물 생산 구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세스타코프 수산청장은 2023년에 고차 가공 비중이 32%에 달했고, 이는 10년 전(2024년 10~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의 포괄적 개혁, 즉 선단과 가공의 현대화에 의한 것이다.

2023년에는 어업 및 어업가공 관련 조직의 총매출이 사상 최초로 1조 루블(2022년 대비 17% 증가)을 돌파하였다. 2014년 총매출은 1,700억 루블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2023년의 세수 및 사회공헌 총액은 1,120억 루블에 달하였고, 이 금액의 일부는 어촌 통합 예산에 할당될 예정이다.

세스타코프 수산청장은 “이를 통하여 푸틴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사회 인프라, 즉 어촌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어업이 경제 발전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Russia.ru, 2024년 3월 14일자

러시아, 3/21 시점 총 126만 톤 초과

지난해 대비 극동 명태 어획량 7% 증가

러연방 모니터링 센터에 따르면 2024년 3월 21일까지 어류 및 수산물 생산량은 126만 톤을 넘어 2023년 수치보다 4% 증가하였다.

전 러시아 어획량의 증가는 주로 극동 지역의 어부들이 제공하는데, 이 수역의 생산량은 100만 톤(2023년 대비 8.4% 증가)을 넘어섰다. 명태(7% 증가), 가자미(5% 증가), 청어(38% 증가) 어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북부 수역 어획량은 13% 증가한 12만 1,700톤

을 기록하였다.

열빙어(88.5% 증가), 게(64% 증가), 가자미(2.8배 증가)의 어업 실적이 증가하였다.

아조프-흑해 어획량은 6.4% 증가한 9,600톤 이상이 어획되었다.

멸치 어획량은 8% 증가, 청어 어획량은 11배 증가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1일자



오호츠크해 명태 및 청어 어업 모니터링 완료

유빙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어획과 안정된 자원 확인

매년 겨울-봄에 전 러시아 수산 및 해양학 연구소(이하, VNIRO)의 마가단 지부 전문가들이 오호츠크해의 귀중한 어종인 명태와 태평양 청어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2018년부터 마가 단 지점을 포함한 VNIRO 극동 지점의 전문가들은 "A"시즌 동안 모니터링 작업 과정에서 명태어업협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어민과 과학자의 공동 노력으로 오호츠크해의 명태와 태평양 청어 자원은 수년 동안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겨울-봄 기간 동안 VNIRO의 마가단 지부의 두 명의 옵서버가 "명태어업협회" 소속 선박에 승선하여 과학 연구 및 어업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은 어업 상황, 명태와 청어 어획량의 구

성, 부산물, 어류의 연령별 크기, 무게 및 성별 특성, 성숙률 및 산란 준비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오호츠크해 북부의 다른 트롤 조업선의 어획량 데이터를 매일 관찰하였다.

오호츠크해의 높은 유빙 범위(전체 해역의 85% 이상)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작업 기간 동안 조업선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동일 기간보다 올해 오호츠크해 북부에서 훨씬 더 많은 명태와 청어를 잡으며 효율적인 어획을 보여주었다.

과학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명태와 청어의 상업용 자원 구조의 일반적인 크기, 무게 및 성별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근 몇 년의 평균값과 일치하였다.

* 출처: 전러시아 수산-해양학 연구소, 2024년 3월 28일자

러시아 명태 소비량 증가

급속 냉동 명태, 소매점에 공급

2024년 1분기에 러시아 어민은 국내 시장에 명태 공급량을 10만톤 이상으로 늘렸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양이라고 명태어업협회(ADM)는 밝혔다.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명태의 국내 시장 공급량은 52% 증가하여 작년에 거의 20만 톤에 달하여 원어 기준 전체어획량의 21%를 차지한다. 올해 1분기에도 생산자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증가하였으며,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그 양은 36% 증가하였다.

극동 명태는 X5 그룹의 Perekrestok 소매 체인의 진열대에 직접 배달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러시아어업회사가 생선 공급을 약속하였으며, 양측은 2026년 말까지 1,200톤의 급속 냉동 명태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1일자



러, 2030년까지 고차 가공 제품 50% 초과 예정

어선 개조로 유용한 제품의 생산량 늘어

어업 업계는 불법 어업과 선박 노후의 주요 위협에 대처해 왔다. 러시아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어획 쿼터 부여 프로그램에 따라 오늘날 새로운 선박이 건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획물을 필렛, 민스 및 연육으로 고차 가공하는 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8월, 러시아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조치 로드맵을 개발하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의 가용성 확대가 포함된다.

국내 시장에 대한 러시아 수산물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량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제품이 소비자의 수요 충족도 중요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부분은 생선을 자르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가공 제품을 선호한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된 새로운 선박과 공장에서 제공하는 고차 가공을 통해 오늘날 고품질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계획된 전체 선박

의 건조를 통해 명태, 대구, 청어와 같은 "국민" 어종 어획량의 최대 100%를 선박에서 직접 필렛, 민스 또는 연육으로 가공하고 냉동하여 갓 잡은 생선의 모든 귀중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어선 선주 협회(ASRF)의 알렉세이 오신체프 회장은 말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건조된 신규 선박과 공장을 고려하면 2023년 고차 가공량은 32%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러연방수산청은 말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지표는 50%를 초과해야 한다. 러시아는 고차 가공 제품확보를 위해 이전까지 아시아 시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러시아 자체 생산품으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육 생산량은 매년 2.5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선상에서 가공된 민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의 판매량도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와 관련, 2023년 4분기 소매점에서의 판매량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다고 Fish Union은 언급하였다.

* 출처: Vedomosti, 2024년 3월 20일자



日 2023년 명태 수출량, 전년 대비 48% 감소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영향

일본의 2023년 명태(신선, 냉동) 수출량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등으로 중국용 냉동품 및 한국용 신선품 수출량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48% 감소한 1만 2,500톤에 그쳤다.

냉동 수출량은 50% 감소한 1만 1,200톤으로, 2022년에 9할을 차지한 중국행 수출이 58% 감소한 8,300톤에 그쳤다. 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하여 8월 하순부터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고, 9월 이후로는 수입량이 제로(0)였다(2022년 9~12월 수입량 5,760톤).

또한, 금수 이전인 7월,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

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전량검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8월에도 일본의 중국행 명태 수출량은 제로(0)였다(2022년 8월 1,300톤).

홋카이도산 명태의 대부분이 연육(すり身) 원료가 되기 때문에, 2023년은 해당 수요가 어가를 지탱하였다. 어획량도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므로, 수출 감소가 어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홋카이도 기선련 측은 "(명태가) 대량으로 어획되었을 때, 중국 수출이 어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 준 것은 틀림없다."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28일자

부채에 허덕이는 러시아 명태 생산업체

20억 달러의 부채에 업계 수익 감소 및 비용 상승 상황 겹쳐

서방의 제재로 생산 비용이 치솟고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러시아의 명태 조업선사는 수익성 하락과 부채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의 알렉세이 부글락 회장은 이번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극동 수산 포럼에서 지난 5년 동안 명태 업계의 총수익은 24% 증가하였으나 생산 비용은 37% 증가하여 순이익은 12% 감소하였다고 말하였다.

PCA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서방 시장의 폐

쇄, 비용 상승, 기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등 여러 요인으로 명태 산업 감소하면서 수익성 있는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또한 2017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은행 융자를 받아 신조 및 건설을 하고 있다.

그 결과, PCA에 따르면 2023년 말 명태 산업의 부채는 1,680억 루블(18억 달러)에 달하였다. 총체적으로 러시아 어업 업계는 9,200억 루블(1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1일자



중 최대 명태 회사, 러시아 생선 포기 계획 없어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 2013년 이후 최저 수준

모기업인 조이비오 푸드社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명태 가공업체인 중국 스타피쉬社는 2024년에 러시아산 H&G 명태를 포기할 계획이 없으며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조달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명태 가공업체는 "2024년에 기존 고객의 수요를 맞추는 동시에 중국 국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필렛 제품에 러시아산 생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언더커런트 뉴스의 무역 포털에 따르면 2023년 중국 H&G 수입의 94%는 러시아산이었다.

작년 11월, 중국 스타피쉬社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는 향후 3년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수산물에 관세 할당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러시아산 명태를 사용한 필렛과 블록 수출에는 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12월,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산 재료로 생산된 연어, 대구, 명태, 게가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미국은 또한 2024년에 명태 어획 쿼터를 늘려 전 세계 공급량이 400만 톤에 가까워져 재고가 충분하다.

러시아 명태 가격은 하락했지만, 미국 명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커런트의 가격 포털에 따르면 러시아산 H&G 명태는 올해 8주 차에 톤당 900달러 이하로 떨어져 언더커런트가 가격 추적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28일자

유빙, 명태와 청어 생산에 방해

러수역 100척의 조업선과 24척의 운반선 조업 참여

3월 19일까지 극동 지역의 명태 어획량은 83만 톤(작년 수준 대비 7% 증가)을 넘어섰고 청어 어획량은 12만 4천 톤(38%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날씨와 유빙 상태에 따라 조업선이 감소하였다.

3월 19일 현재 약 100척의 조업선과 24척의 운반선이 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조 예산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조업선에서 운반

선으로의 전제는 국경수비대의 38명의 검사관이 통제하고 있으며, 과학원 소속의 14명의 옵서버가 조업선에 동시 승선하고 있다.

3월 18일까지 연해주 냉동창고의 총적재량은 41%로 감소하였으며, 거의 4만 7,000톤의 신선 냉동 제품이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1일자



러 수역, 꽁치 어업 증가 예상 여름, 가을 남서부 베링해 꽁치 어획량 증가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 수역의 꽁치 어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연방 수산청 부청장 주재로 개최된 업계와 과학자 등이 참석하여 열린 회의의 결론이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북동부 수역의 꽁치 생산에 대한 예측 자료를 발표하였다. 10간 수집된 어업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꽁치 어획이 쿠릴 열도에서 공해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선박당 일일 평균 어획량은 20톤에서 2021년에는 4톤으로 감소하며 수익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해 러시아 꽁치어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잠정 어획량은 10만 2,000톤이었으나, 단 한 척만 조업에 나섰다. 이 선박도 선장의 발병으로 한 달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총어획량은 51톤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쿠로시오 해역의 꽁치 분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이 소구치 해류가 강화하였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해수 온난화로 꽁치 먹이 집단이 쿠릴 열도와 일본 열도에서 동쪽으로 멀리 이동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만과 중국의 공해 어획량도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어획 효율은 눈에 띄게 높아져 중국은 9월에 예정보다 일찍 할당량을 채웠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은 여름과 가을에 베링해 남서부의 북부 쿠릴 열도 근처에서 꽁치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제 먹이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향후 몇 년 안에 상업용 꽁치 어군이 남부 쿠릴 열도 인근의 전통적 어장에 접근할 것이라는 증거로 간주한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3월 7일자

日, 꽁치 어업에 AI 활용 AI로 어장 예측 시스템 구축

일본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는 해수온도의 변화나 과거의 어획 실적 등에 근거하여 당일로부터 2일 후까지 꽁치가 어획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해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어선이 이용하고 있으나, “표시 지점이 많아 오히려 혼동된다.”라는 어업자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JAFIC는 어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좁혀서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실적으론 어군의 밀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14일자



퓨 “북태평양 어업 관리, 생물 다양성에 도움” 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성 개선 필요성 제기

퓨(Pew) 자선재단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 연례 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태평양 쾡치와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과학 기반 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태평양 하와이와 러시아 사이의 황제 해산에 서식하는 심해 분홍색 산호는 어업으로 인하여 손상이 되었으나 보호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

북태평양에는 소중한 상업적 어류 개체군과 심해 산호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어종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NPFC가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신속히 건강한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

NPFC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9개 회원국 정부는 상업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쾡치에 대한 관리를 현대화하여 개체 수 재건을 위한 예방적 관리를 채택하여야 한다.

쾡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쾡치는 참치, 상어, 연어 등의 포식자에게 중요한 먹이이며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어종이다. 역사적으

로 쾡치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대만에서 주요 상업 어종이었고, 오랫동안 식용으로 귀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NPFC는 2023년에 시행된 25% 감소를 포함하여 총허용 어획량을 두 차례 줄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쾡치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021년에 NPFC는 쾡치의 장기적인 관리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올해는 임시 수확량 통제 규칙(이하, HCR)을 채택하여 이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HCR은 개체군 규모에 따라 어획 한도를 설정하는 사전 합의된 규칙으로, 쾡치 개체군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다.

임시 HCR이 시행되면 NPFC는 완전한 관리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 절차에는 어업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도출된 어획 전략은 어업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계에서 쾡치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례 회의에서 NPFC는 명확한 일정에 따라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강력한 관리 절차는 쾡치 어업의 장기적인 회복, 예측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콩치에 의존하는 모든 해양 생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제 해산은 생산성이 높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가장 현대적인 지역 수산 관리 기구 중 하나인 NPFC는 회원국에게 어업 관리에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어업이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황제 해산 주변 수역을 보호 구역으로 선정할 시 NPFC는 어업 관리와 생

태계 보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모든 NPFC 회원국은 태평양 콩치를 복원하고 취약한 심해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에 기반한 예방적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NPFC의 미래 지향적인 지역 어업 감독에 대한 기준을 높일 것이다.”

* 출처: 퓨 자선재단, 2024년 3월 21일자

日 2023년 콩치·정어리 수출량 감소

콩치 수출량 전년 대비 8% 감소

일본의 정어리 어획은 호조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9만 2,691톤을 기록하였다. 평균 수출 단가는 kg당 107엔으로 23% 상승하였다.

글로벌 사료 가격 급등으로 원어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과, 일본 내 공장의 거래가 강해졌다는 점이 수출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33개국 및 지역이다. 최다 수출국인 타이행 수출량은 전년 대비 반감한 4만 4,000톤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행이 많다. 주로 튀김, 초밥 등에 사용되는 일본용 제

품의 가공 원료 반입 외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용 통조림 원료의 수요가 존재한다.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의 도서국은 다랑어류 어업의 먹이용 수요가 존재한다.

일본의 2023년 콩치 수출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612톤이다.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수출되었다. 대만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량은 24% 감소한 5,584톤이다. 생산국인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모두 장기적인 어획량 부진으로 인하여 무역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28일자



FAO “2022년 세계 수산물 생산, 2억 2,321만 톤” 양식 생산량 10년간 4,300만 톤 증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가 4월 3일 수산통계 플랫폼 FishStatJ에 업데이트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약 2억 2,321만 톤으로, 최초로 2억 2,000만 톤 대를 기록하였다. 어획이 감소하고 양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어획 생산량이 약 9,229만 톤(2021년 9,282만 톤)으로 0.6%, 약 53만 톤 감소하였고, 양식은 약 1억 3,092만 톤(약 1억 2,623만 톤)으로 약 470만 톤 증가하였다. 양식은 매년 생산량이 증가한 결과,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약 4,300만 톤 증가하였다.

어획량은 주요 어종인 유럽 정어리를 필두로 가다랑어와 대서양 청어도 증가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2021년 대비 감소하였고, 명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2021년도에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던 참고 등어의 2022년도 어획량은 약 1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여 2020년 수준에 근접하

였다.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칠레 전갱이로, 전년 대비 26.6% 증가한 약 105만 톤을 기록하였다.

양식의 경우, 흰다리새우의 생산량이 7.6% 증가한 68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해조류 중에서 갈조류는 중국 등지에서 증가하면서 전년의 약 1.6배 수준인 총 208만 톤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해면양식 생산량은 2021년도까지 9위였으나, 흰다리새우가 22만 톤으로 증가한 에콰도르에 밀려 10위로 하락하였다.

생산량을 국가별로 분석하면, 상위 6개국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고, 3위 인도가 9%, 4위 베트남은 5% 증가하였다.

어종별로는 멸치류가 1위를 지켰으나,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 17%나 감소하였다. 2위인 명태 또한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4월 4일자





2022년 전세계 국가별 수산물 생산량 순위 (FAO 조사)

(단위: 톤)

구분	국가명	2021년	2022년	전년비
1	중국	85,948,134	88,567,716	103.0%
2	인도네시아	21,718,023	22,032,425	101.4%
3	인도	14,433,205*	15,774,325*	109.3%
4	베트남	8,290,424	8,760,378	105.7%
5	페루	6,726,989	5,509,031	81.9%
6	러시아	5,487,045	5,339,717	97.3%
7	방글라데시	4,621,228	4,758,731	103.0%
8	미국	4,769,525	4,741,660	99.4%
9	노르웨이	4,244,846	4,262,103	100.4%
10	칠레	3,834,717	4,214,240	109.9%
	전세계 합계	219,048,919	223,210,329	101.9%

*는 FAO 추정치

2022년 전세계 어종별 생산량 순위 (FAO 조사)

(단위: 톤)

구분	어종명	2021년	2022년	전년비
1	멸치류	5,876,142	4,859,471	82.7%
2	명태	3,484,189	3,358,618	96.4%
3	가다랑어	2,989,949	3,061,304	102.4%
4	대서양청어	1,628,190	1,648,245	101.2%
5	황다랑어	1,569,937	1,563,619	99.6%
6	유럽정어리	1,362,876	1,551,349	113.8%
7	참고등어	1,708,078	1,398,590	81.9%
8	정어리	1,411,591	1,377,301	97.6%
9	갈고등어	1,230,432	1,291,620	105.0%
10	대서양고등어	1,142,369	1,097,444	96.1%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법안 잠정 합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수출 금지

지난 3월 5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EU 내에서 판매되거나 EU 외부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3월 11일, 다수의 인권단체와 무역단체가 EU 회원국에게 해당 규제의 지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만일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참치 및 타 수산 분야의 노동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초, 유럽 규제당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는 제안을 도입하였다. 3월 5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합의는 조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EU 위원회 및 국가 담당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원 제안에서 상당한 수정 사항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강제 노동 리스크에 관하여 검증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EU 집행

위원회는 또한 경제 주체 및 담당 기관이 새 법안을 준수하게 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강제 노동 문제를 종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강제노동 통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동반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EU 영토 외부의 조사를 주도하고, 특정 회원국에 강제노동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회원국의 당국이 문제를 조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U는 이미 EU 인신매매 방지 지침과 같은 강제노동 문제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세계 강제 노동 종사자는 약 2,760만 명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와 태평양이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12일자

USDA, 2024년 수산물 가격 1.7% 하락 예측 2021년~2023년 상승 이후 하락 예상

미국 농무부(이하, USDA)는 2024년 식품 가격 전망을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선 및 기타 수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SDA에 따르면 생선 및 기타 수산물 가격은 앞으로 1.7% 하락할 것이며, 예측 구간은 -4.5~1.3%이다. 참고로 수산물 가격은 2021년에

5.4% 증가, 2022년에 9.1% 증가, 2023년에는 0.3% 증가하였다.

최근 2024년 2월에 생선 및 수산물 가격이 0.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고 USDA는 밝혔다. 생선 및 수산물 가격은 2023년 2월보다 3.9% 낮았다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4월 1일자



美, 수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판매량 증가

냉동 수산물 판매량 전년 대비 5.9% 증가

2월에도 미국 소매점의 수산물 인플레이션은 지속 완화되며, 사순절 시즌이 시작되면서 냉동 및 실온 수산물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새로운 미국 노동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생선 및 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3.9%, 전월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카나(Circana) 자료에 따르면, 2월 냉동 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8% 하락한 파운드당 평균 7.13달러로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냉동 수산물의 2월 가격 하락은 예전부터 예상하던 내용이라고 분석가는 말하였다.

2월 냉동 수산물 판매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5.9%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금액 기준 매출은 2.5% 감소한 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서카나는 밝혔다.

냉동 명태는 2월 냉동 수산물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으며, 금액 기준 매출은 14% 증가한 6,400만 달러, 물량은 24.5% 증가하였다.

냉동 수산물은 선방했지만 신선 수산물은 2월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8.8% 감소한 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판매량도 8.7% 감소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해당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3월 13일자

WMO, “엘니뇨 약세에도 세계 기온 상승 전망”

향후 수개월간 평년 수준 이상 기온 예상

세계기상기구(이하, WMO)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은 약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 기온은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WMO 측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은 2023년 12월에 정점에 달하였고, 현재는 약해지고 있으나, 향후 수개월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WMO 측은 향후 수개월, 3~5월에 걸쳐 육지의 상당 부분에서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WMO 사무국장에 따르면 2023년 6월 이후,

기온은 매월 과거 최고 수준을 경신하였다. WMO 측은 엘니뇨도 이러한 기록적 기온에 영향을 미쳤으나, 온실가스 효과가 주원인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WMO는 3~5월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60% 이상으로 예상하였다. 4~6월은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 모두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 상태일 확률이 80%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라니냐 현상이 연내에 발생할 수도 있으나, 발생 확률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3월 11일자



中 CNFC, 수요 감소·인건비 상승으로 실적 약세 참치 연승 외에 참치 선망, 오징어 및 트롤 어업으로 사업 확대

중국 국영 어업 회사 CNFC는 2023년 중국 및 글로벌 수산물 수요가 여전히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그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말하였다.

CNFC는 2023년에 1억 1,810만 위안(1,6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여 2022년의 1억 5,860만 위안(2,190만 달러)의 이익에서 감소하였다. 3월 25일 발표된 이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총매출은 2022년 39억 7천만 위안(5억 4천 860만 달러)에서 2023년 40억 4천만 위안(5억 5천 880만 달러)으로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중동, 중국에 걸쳐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CNFC는 냉동 참치 가격 하락의 원인을 주요 시장의 소비자 수요 약세와 재료 및 연료 비용으로 꼽았다. CNFC는 선박에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이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회사는 계속해서 심각하고 복잡한 외부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미약하고 국제 무역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어업 생산 및 공급 자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생선 판매 시장은 매우 부진하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인수

합병 대출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증가로 인해 금융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손실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하였다.

CNFC는 수년 동안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최근 모기업인 중국농업개발그룹공사에서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쳤다.

그 후 CNFC는 2023년 6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수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중위 글로벌 해산물 주식회사, 중국 국가농업개발그룹 저우산 해외수산, 중국 수산물 저우산 해양수산의 대주주 지분을 총 17억 2천만 위안(2억 3천780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수산업 체인의 통합 관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대대적인 자산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20년 이상 존재했던 수평적 경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었다. 상장 기업의 자산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참치 연승 어업에서 참치 선망, 오징어 어업, 각종 트롤 어업 등으로 조업이 확대되었으며 조업 어종도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어업 서비스 및 식품 가공과 같은 새로운 사업 부문이 추가되어 통합 원양 산업 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CNFC는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4월 2일자



日 정부, 새 외국인 재류 인증 제도 도입 기존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체...사실상 무기한 재류 가능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창설하는 입관난민법(入管難民法) 등의 개정안을 결정하였다. 미숙련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일정 기술이 필요한 '특정기능 1호'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장기적 체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성립된다면 2027년부터 새 제도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 제도의 개시 전까지 일본에 입국한 기능실습생은 3년의 실습기간이 종료되면 재류가 인정된다.

이번 새 제도는 일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배경이 되어,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정하였다. 받아들이는 대상 분야를 특정기능과 일치하게 하여 원활한 이행을 촉진한다. 육성 기간은 3년으로, 기능 또는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최장 5년간 일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 이행을 인정한다. 숙련 노동자 전용의 '특정기능 2호'를 취득하면 사실상의 무기한 재류나 가족 대동도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적(転籍, 직장을 바꾸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나, 새 제도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는 최장 2년 범위에서

분야별로 전적 제한 기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악질적 전적 브로커 배제를 위하여 불법취업조장죄의 형량을 강화하였다.

외국인의 수용이나 근무처의 지도를 담당하는 「감리 단체」는 「감리 지원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외부 감사인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외국인 육성 취업 기구」의 창설도 포함했다.

장기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영주권자가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납부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영주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 개정안 핵심

- 육성취로제도 창설, 경과 조치는 3년
- 특정기 1호로 3년만에 육성
- 최장 2년의 전적 제한
- 불법취업조장죄 엄벌화
- 감리지원기관의 독립성 확보
- 세금 미납 시 영주허가 취소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3월 18일자



日, 러시아와의 어업 협상 긍정적으로 평가

2,050톤 쿼터에 120만~210만 달러 지급 예정

일본은 러시아 측과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2024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어와 송어 조업 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일-러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어업은 이웃 국가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이번 회담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말하였다.

동시에 장관은 1998년 쿠릴열도 남부 수역에 대한 어업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모스크바에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듯이 모스크바는 일본 측이 도입한 반러시아 조치로 인하여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관방장관은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가능한 한 빨리 기본 협정에

따라 조속히 조업을 합의하기 위하여 러측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쿄와 모스크바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어부들이 2024년 연어와 송어를 조업할 수 있도록 2,050톤의 쿼터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수역에는 러시아 강에서 올라오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일본은 입어료로 1억 8천만~3억 1천3백만 엔(120만~210만 달러)을 지불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1984년 협정에 따라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양국은 매년 협의를 통하여 수산물 쿼터에 대해 합의한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15일자

日, 마셜제도 무상자금 협력 지원

IUU 관련 부문 약 2억 엔 공여

일본 정부는 마셜제도의 해상 보안능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나카 잇세이 일본 특명전권대사는 지난 3월 21일,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무·무역장관과 2건의 무상자금 협력에 대한 서한의 서명 및 교환을 실시하였다. 그 중, 현재 건설 중인 해상보안 훈련·사령센터로의 접근도로 등의 개수 및 선박 연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공여에 2억 엔을 거출한다.

외무성 측에 따르면 마셜제도는 어업이 주요 산

업인 반면, 수역의 적절한 관리나 수색구조 등 해양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EEZ에서의 IUU 어업이나 마약류 밀수 등의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마셜제도는 그 외에 2021년에 서명한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과 관련,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 따른 자금 부족에 대응하여 1억엔을 추가 증여하기로 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4월 10일자



러시아, 수산 보조금 WTO 협정 조인 IUU 어업 방지에 효과 기대

세계무역기구(WTO) 러시아 상임대표인 니콜라이 플라토노프는 2024년 3월 18일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옌조-이웨알라에게 러시아가 어업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수락하는 증서를 전달하였다. 회의에서 상임대표는 이 국제 문서의 이행이 어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산 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은 2022년 6월 17일 제12차 세계 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체결되었다.

"이 조항의 시행으로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운영

자, 생산자 및 수산물 수출업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산 분야의 "유해한" 관행에 대한 WTO 회원국의 국가 지원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의 조항은 세계적으로 고갈된 수생 생물 자원의 회복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무역협상부 국장인 예카테리나 마요로바는 말하였다.

러시아는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72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의 2/3, 즉 166개 회원국 중 110개국이 채택하여야 한다.

* 출처: Portnews, 2024년 3월 19일자

러-중간 수산 부문 협력 지속 발전 협의 양국, 2024년 조업 계획 합의

제32차 러시아-중국 수산분야 공동위원회 회의가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대표단은 바실리 소콜로프 러연방수산청 부청장, 중국 대표단은 쑨하이윈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수산 어업보호국 부국장이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국경 수역의 수생 생물 자원 보호 및 번식, 철갑상어와 연어 종의 과학 연구 분야, 과학 및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 발전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한 중요한 단계는 어획/원산지 적법성을 확인하는 러시아 수산물의 종이 인증서를 전자 인증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의 예방, 억제 및 근절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3월 28일자



러, 수산업 개혁과 미래 과제에 대해 언급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러시아 입지 강화

2024년 3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국제 과학 및 실무회의 "러시아 수산 단지: 러시아 학술 과학의 300년" 본회의에서 산업 개혁과 미래 과제에 대해 러연방 수산청장은 수산업 개혁과 미래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2027년까지 105척의 선박이 모두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2단계 투자 규정에 따라 약 46척의 선박이 건조될 예정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어획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과학적 자원 연구가 조업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조업선이 귀중한 자원을 어획에 집중할 수 있다. 새로운 선박은 이미 극동 수역에서 운항 중이며, 생산성이 매우 높

아 연간 5~6만 톤을 어획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프리카의 과학 자원 조사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은 1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이를 통하여 미래 자원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수산청장은 대통령에게 아프리카 국가의 어족 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프리카 해양조사는 두 개의 조사를 결합하여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다. 이번 탐험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어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7일자, Tass, 4월 8일자

러시아 생선 및 수산물 판매 감소 수출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판매 감소

미BusinesStat의 "2024년 러시아 생선 및 수산물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내 판매량은 1.5% 감소한 341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판매는 해외, 특히 아시아 시장의 국내 제품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시아 어획량의 대부분은 태평양 수역에서 생산한다. 극동 지역의 생선 및 수산물 생산 및 가공 회사는 보관 및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 최종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러시아 전역으로 제품을 보내거나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와 같은 더 가까운 시장으로 제

품을 보내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수입 관련 규제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판매 가능한 기존 생선과 수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2022년에는 국가 경제의 부정적인 변화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급 제한 완화로 인해 러시아 시장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2023년에도 러시아에서 생선 및 수산물 판매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었지만, 그 비율은 1.5%로 감소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3월 29일자



中, 러시아 생선 제품 수입 선호 수출업체의 판매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러시아 수출 구조에서 가공 수산물의 비중은 아직 2022년 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수산물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차 가공의 비중은 아직 제재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어선 선주 협회(ASRF)는 밝혔다. 고차 가공 제품(필렛, 민스, 어분 등 포함)의 점유율은 2023년 첫 두 달에 비해 0.3%p 증가하여 17%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22년 1월~2월보다는 1.7%p 낮다.

2022년 초 수산물 총생산량에서 고차 가공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미국 시장 폐쇄와 EU 및 영국의 제한을 고려한 외부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외부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출 흐름을 우호국의 해외 시장으로 재조정하면 총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시장은 원자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러시아 가공 제품의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소비하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한다.

"러시아 농업부가 지적한 것처럼 러시아 고차 가공 수산물 수출업체의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를 수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경우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선 선주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PortNews, 2024년 4월 6일자

러, 나훗카 무역항 선석 수리 총길이가 2km가 넘는 선석 수리 예정

JSC 나훗카 상업 항구社(NCSP)는 나훗카 항구의 8~9, 14, 15, 71~78 번 선석의 현재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전자 경매를 발표하였다. 조달 통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계약의 초기(최대) 가격은 3,930만 루블이다.

조달 자료에 따르면 작업 수행 기간은 180일이다. 작업에는 시트 파일 벽의 수중 수리, 상부 구조물 수리, 콘크리트 타설 등이 포함된다.

수리해야 할 선석의 총길이가 2km를 초과한다. 예상되는 시설의 물리적 노후화 정도는 18%~27%이다.

나훗카 상업 항구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하역 회사 중 하나이다. 이 항구는 나훗카 만의 피터 대제만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구는 아시아-유럽-아시아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지점과 연결된다.

항구의 수용 능력은 하루에 최대 612대의 화차를 하역할 수 있다. 항구의 창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

* 출처: Portnews, 2024년 3월 19일자



산골물

윤 동 주

괴로운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옷자락 물결 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부러 말할 이 없도다.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런 듯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55% 감소, 소비자가격은 유지

□ **생산동향**(3월 오징어 생산량 89톤으로, 작년 대비 55% 감소)

3월 오징어 생산량은 연근해산 어황 부진으로 전월 대비 55.1% 감소한 89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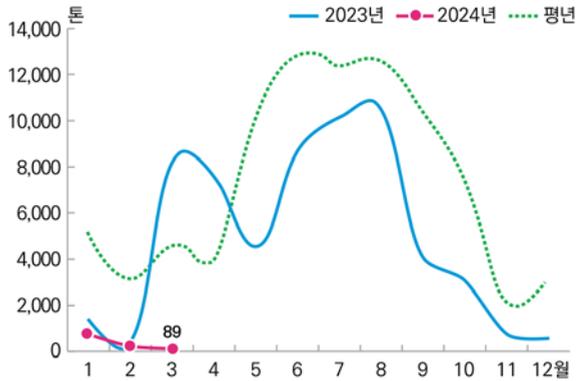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8.9%, 98.1% 적었다.

수협별 위판량은 통영수협(16톤), 부산시수협(13톤), 거제수협(11톤) 등의 순이었다.

어획된 물량 중 56.1%가 활어로 위판되었으며, 다음으로 선어(43.2%), 냉동(0.7%) 순이었다.

작년에는 3월에 원양산 반입이 재개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 3월말 기준 원양산 반입 실적은 없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원양산 오징어 어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4월부터 국내 반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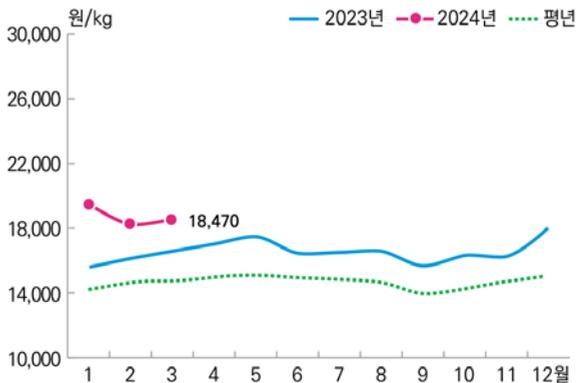
□ **가격동향**(3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18,470원)

3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3,936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으나, 전월 및 평년 대비 각각 26.3%, 25.5% 하락하였다.

이는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획물의 체장이 작았기 때문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29,967원으로 기준 크기 이상의 공급 물량이 적어 전월 대비 13.4% 상승하였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8,470원으로 어황 부진 심화로 공급 및 재고 감소세가 지속되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0%, 25.6% 상승하였다.





한편,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대형소매점 할인행사가 이어지며 전월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수출입동향(3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과 비슷)

3월 오징어 수출량은 882톤으로 전월 대비 12.5% 증가했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61.6%, 46.6% 적었다.

중국(325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미국(212톤), 대만(74톤)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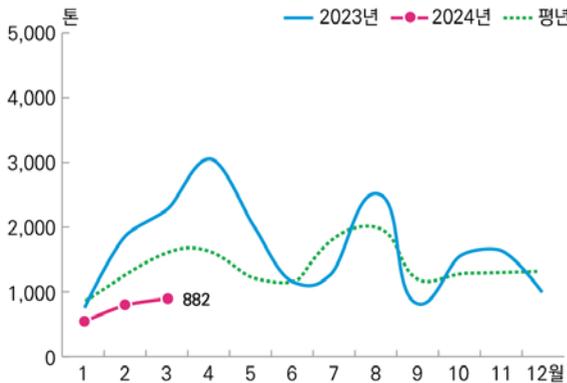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582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184톤)가 주로 수출되었다.

3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5,787톤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3.8%, 25.9%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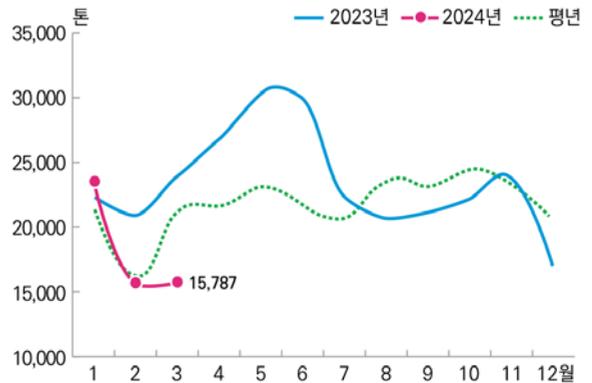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산(8,252톤)과 페루산(6,033톤)이 대부분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5,528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6,897톤), 조미오징어(3,127톤), 건조오징어(232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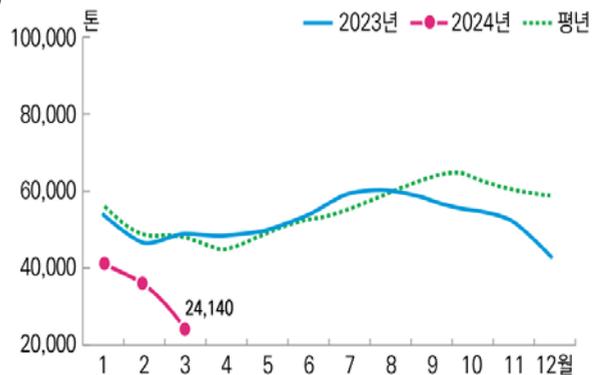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3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34% 감소)

3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2만 4,140톤으로 전월 대비 33.7%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0.5%, 49.7% 적었다.

4월은 어한기 및 금어기의 영향으로 연근해산 생산이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이나,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면서 재고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관측 4월호



3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6% 증가, 소비자가격은 유지

□ **생산동향**(휴어기)

원양 명태트롤어업 휴어기로 명태 생산이 없으나, 한·러 간 입어 협상이 모스크바에서 타결이 완료되어, 5월부터 북서베링해에서 원양조업선이 조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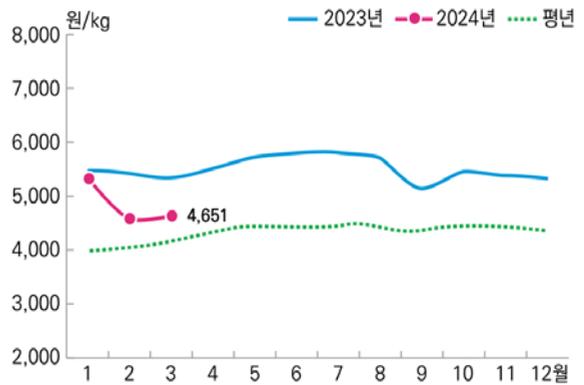
□ **가격동향**(3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4,651원)

3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73원으로 전월 대비 2.1% 하락하였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3.4% 높았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1%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4,651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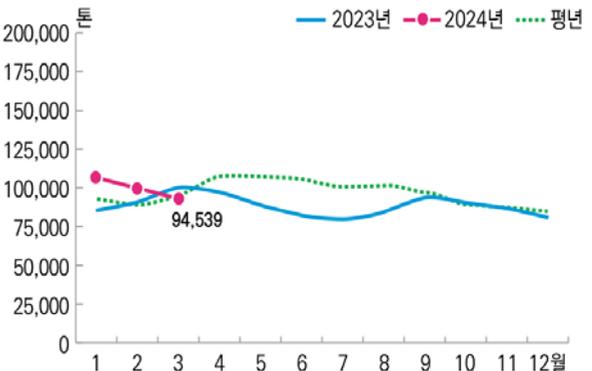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2.4%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11.9% 높게 형성되었다.



□ **재고동향**(3월 재고량,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감소)

3월 말 명태 재고량은 9만 4,539톤으로 원양산 반입이 종료되었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월 대비 6.1%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6.9%, 2.8% 적었다.





□ 수출입동향(3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6% 감소한 3만 95톤)

3월 명태 수출량은 2,620톤으로 전월 대비 200.1% 증가하였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29.6%, 61.5%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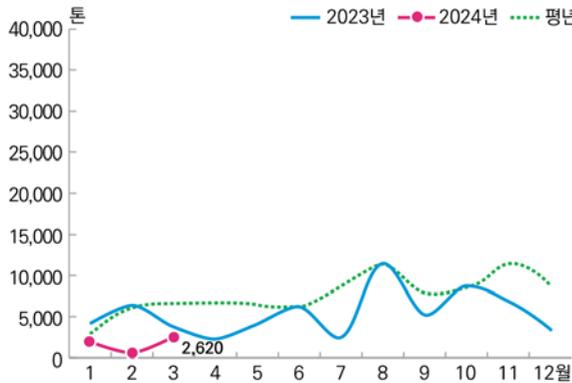
국가 및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명태가 중국(688톤) 및 베트남(386톤)으로, 냉동연육은 중국(48톤) 및 베트남(46톤)으로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6.2% 증가한 3만 95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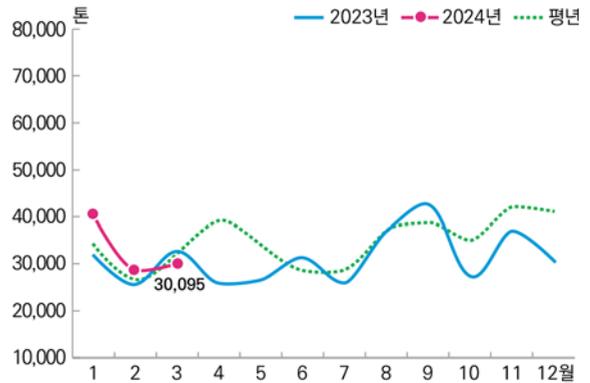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각각 7.1%, 8.1% 적었다.

국가 및 제품 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1만 7,958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3,330톤), 미국산 냉동연육(3,427톤) 등의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4월호



외국선원 처우 개선 위해 정부·단체·산업계가 뭉쳐 출항 이후 1년 이내 기항 의무화, 각종 송출비·보증금 금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시민단체(어필, 환경정의재단),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

목으로 국내외 송출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하여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하여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하여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목)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www.fsale.kr).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4월 4일 오후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격·수급동향과 할인행사 준비상황 등을 점

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지역 기반 중·소형 마트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할인지원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들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비롯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민간 유통주체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인지원 외에 주요 수산물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4월경 원양산 초도물량 약 9천 톤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집중 공급했다. 다른 대중성어종 5종도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할인 공급(3.14.~)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수요 분산을 위해 4월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함께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3	총괄(겸직)
	김효상 과장	589-1609	기획
	조성주 과장	589-1608	홍보
	김민재 주임	589-1622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589-1607	원양어업관리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589-160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박찬준 사원	589-1620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원	589-1618	북양, 꽁치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051-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경영지원본부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관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유통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th>044-868-7364 <th>국제(수산)기구</th> </th>	044-868-7364 <th>국제(수산)기구</th>	국제(수산)기구
국제협상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검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68호	발행	2024년 4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김영규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참치통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치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제격
--	--------------------------------

	꽁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구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